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10일)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文, 대통령 최초 10.27법난 유감 표명

종단협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서 "불교계 염원에 담담히 걷겠다"

文 "화쟁으로 남북문제 해결"
한국불교와 국민 행복 염원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 참석
北조선불교도연맹도 축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7일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종단협 회장 설정 스님이 부처님전에 삼귀의례를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열린 한국불교계의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불교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기원했다. 특히 불교 공휴일 공식명칭인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이후 현 정부와 불교계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내달 거행될 봉축행사의 의미도 더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17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각 종단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한반도 평화, 국민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주요사찰 주지스님, 정관계 인사, 재가불자 대표 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명칭이 변경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文대통령의 '말말말'

- 정상회담 준비하며 '화쟁' 깊이 생각
- 佛法서 지속가능한 평화 지혜 찾아
- 世界一花 이루려면 불교 역할 중요
- 불교계 명예 온전히 회복돼 융성하길
- 불교 세계관이 저의 세계관의 한 축

文대통령, 10.27법난 유감표명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5번째로 불교계 주최 국가기원법회에 참석했다. 앞서 1981년 전두환 前대통령을 시작으로 2005 · 2007년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이명박 前대통령, 2013년 박근혜 前대통령이 불교계 기원법회에 자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가장 먼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불교 사부대중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을 깊이 생각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화쟁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일화를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불교 역할이 중요하다. 한분 한분이 빈자일등이 돼 달라. 지극한 성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에 평화의 길을 밝히고, 불자대중이 모아주신 염원을 되새기며 더욱 지혜롭고 담담하게 걸어가겠다"면서 "불교 정신은 알게 모르게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저력이 됐다"고 평가한 뒤 남북교류를 넘어 세계구호에 나서는 불교계 활동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27법난에 대한 유감을 현직 대통령 최초로 표명했다. 1988년 12월 강영훈 前국무총리가 10.27법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한 10.27법난이 그것"이라며 "불교계에 여전히 남은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고, 여러 사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다. 이런 원력으로 불교가 한국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맑은 기운을 듬뿍 받으니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佛法 아래 대자비 실천 다짐

설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남북 문제는 한국불교의 사상과 전통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합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끌어안을 때 가능하다"며 "한국불교는 온 국민과 더불어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로 모든 것은 통한다는 원융회통 사상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왔다"고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 담긴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은 〈화엄경〉 속 '인해방편이수치(忍海方便已修治) 고능엄정무변찰(故能嚴無邊刹)'을 언급한 뒤 "인욕의 방편을 잘 닦아서 세상을 청정하게 장엄해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는 경전 가르침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남북)대화는 위기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오신 대통령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이어질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 현장서도 우리는 세계일화와 같은 큰 가치와 정신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아울러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종단협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9개 회원종단 소속 1만5300여 개 전국 사찰서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올리고, 회담 당일 오전 10시 33번의 타종식을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법회 말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설정 스님은 안개꽃과 지화로 장엄한 한반도 지도에서 휴전선 위치에 연꽃을 꽂으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은 기원법회에 앞서 10일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원법회 앞'이라는 제목의 축전을 조계종에 보냈다. 강 위원장은 "온 겨레가 강렬한 지향과 열망을 뜨겁게 분출시켜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의 새봄을 불러왔다. 역사적 민족단합의 봄기운을 풍요가을의 결실로 이어가이 위해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법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홍보영상 시청과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불교 전통의식인 명고 · 명종, 육법공양, 삼귀의례, 예불, 축원(종단협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 반야심경 독송이 진행됐다.

전법 활성화 위한 대중공사 열린다

조계종 전법단 2차회의서 오는 9월 13일 개최 결의

침체된 불교 교세를 되살리기 위한 전법 대중공사가 열린다. 조계종 전법단(단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4월 19일 제2차 조계종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법 대중공사'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전법단 대표자 회의에는 체육인 전법단, 경찰 전법단, 장애인 전법단, 병원 전법단, 청년대학생 전법단, 국제 전법단, 교정교화 전법단, 신도시 전법단, 어린이청소년 전법단, 어르신 전법단, 군 전법단 대표자와 실무자 25명이 동참했다.

먼저 전법 대중공사는 △전법단 역할과 방향(청년대학생전법단장 본공 스님) △경찰 · 교정교화 · 청년대학생 · 어린이청소년 · 어르신 분야 전법활동 방안 △지역불교 활성화 및 포교네트워크 구축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세번째 주제인 포교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전법단과 포교원 산하단체 협력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며 발제가 끝난 후에는 발제 주제들에 대한 전체 토론 및 향후 과제가 도출될 예정이다.

전법단 측은 "불자 인구 감소 국면은 결국 전법 활성화로 돌파할 수 밖에 없다. 전법 활성화를 위해 대중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佛島' 제주는 지금 방송 포교 전성시대

BBS, BTN 제주 진출 잇달아

불심(佛心)의 섬 제주가 불교 방송 포교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들이 잇달아 제주에 진출했기 때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4월 11일부터 KCTV제주방송 채널 376번을 통해 TV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제주지역 FM 94.9 MHz 주파수를 허가받은 BBS불교방송은 올해 BBS제주불교방송 개국을 목표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성금불사, 기반 구축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진 BBS제주불교방송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BBS TV 시청이 가능해졌고 올해 BBS제주불교방송이 개국하면,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포교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4월 13일 제주시 아라동에 제주지사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제주 시대를 알렸다. BTN는 제주지사가 개소하면서 전국에서 방송 포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는 "향후 BTN이 제주불교계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주의 방송언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018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4.27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

2만 수보리의 합창 · 두번째 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T. 02-733-7277 F. 02-733-7278 www.LBA.or.kr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금강경 독송정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관광공사 KBS 한국방송

“남북불교교류에 천태종 역량 쏟겠다”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 기자간담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의천대각국사 다례재 비롯
북한불교와 사업 적극 논의
종무행정 제도 점검해 개선
“시대흐름 맞도록 변화 주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교류가 단절돼 천태종은 최근 몇 년간 개성 영통사에서 의천대각국사 다례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훈풍이 불고 있어 남북불교교류 재개를 기대합니다. 종교차원서 교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종단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문덕 스님〈사진〉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불교교류를 바탕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4월 13일 서울 관문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운영기조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고 매년 영통사서 한국천태종 개창조인 의천대각국사 다례재를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봉행해왔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교류가 단절됐다. 다행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어 천태종은 민간교류로 확대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교류가 개방되면 의천국사 다례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남북불교교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문덕 스님은 “아직은 이르지만 남북정상 간의 대화가 잘 마무리되고, 민간교류의 길이 열리면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천태종은 불교교류의 기회가 확장되는 대로 추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임법회에서 시대적 가치에 따른 행복 구현을 포부로 밝힌 문덕 스님은 이날 ‘수행종풍의 내실화’를 운영기조로 제시했다.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 · 대중불교 · 생활불교를 받들며 종단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를 위해 문덕 스님은 현재 종단 종무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개선책을 세울 계획이다.

문덕 스님은 “천태종은 타종단과 달리 사찰과 종단 운영에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덕분에 스님이 많지 않아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잘 다져진 종무행정 제도를 시행중”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뒤처진 부분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덕 스님은 현재 서울 명락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센터 불사가 보류상태임을 알리고, 당분간 세종시 종교부지에 세울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끝으로 문덕 스님은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불자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로 “우리나라는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마음은 가난한 시대가 됐다”며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불자든 비불자든 모든 사람은 진리 아래 살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을 밝혀 경제발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종회, 부채 변제위원회 구성키로

제134회 임시중앙종회서 결의

태고종이 종단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회 차원의 종단 채무변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4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4회 임시종회를 열고 종단 부채와 관련해 종회 차원에서 종단 채무 변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것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종회에서는 호법원 부원장에 관정 스님, 원로의원에 운경 스님, 혜운 스님이 선출됐다. 또 옥산 스님과 지륜 스님, 정암 스님, 선종 스님, 대원 스님 등 5명이 호법위원으로 임명동의됐다. 하지만 2017년도 태고종 세입 · 세출 결산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무방침연술을 통해 동방불교대학 정상화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종단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한 국내 단체와의 관계 개선 및 위상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학인과 소통하는 교수법 배운다

조계종 교육원, 5월 3~4일 상주 교수 연찬회

전법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사찰 승가대학 상주 교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강연이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5월 3~4일 1박2일간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찰 승가대학 · 대학원 상주 교수 연찬회를 개최한다. ‘학인 스님들과 소통하는 교수방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강의와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강의는 하오선 동국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가 ‘뇌 기반 소통법’을, 김수영 동국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이 ‘플립드러닝 교수법’을, 최정현 한글과컴퓨터 이사가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실습’ 등이 이뤄진다.

교육원은 “승가교육 중심에 있는 승가대학 · 대학원 교수 스님들의 상호교류와 효과적인 교수법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4월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영단에 헌화한 뒤 예를 올리고 있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설정 스님, 세월호 4주기 ‘유가족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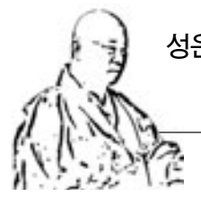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합동분향소를 방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 위로에 나섰다.

설정 스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시 화랑유원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스님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불교계가 힘을 실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서는 영정과 위패를 이운하기 전,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 4대 종교 기도회가 마련됐다. 불교계는 첫 순서로 참여해 설정 스님이 영단에 헌화와 분향했다.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설정 스님은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과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어 조만간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미수습자로 남아 있는 다섯 분도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지난 4년간 70여만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안산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정부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철거됐다. 영정과 위패는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으며, 화랑유원지 인근에 추모공원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악연 不善의 업을 녹여야 풀린다

아상 다스려 업처를 보면
상생 소통하는 善緣 나와
“손에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것이 인과법칙이고 인연법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 제16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면 이는 악도에 떨어져야 할 전생의 죄업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므로 곧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능정업장분의 이 말씀은 당장 여기서 업장을 소멸하는 가르침입니다.

범부 중생에게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참기 어려운 재앙입니다. 중생은 아상을 가볍게 건드려도 분노합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마음 ‘인욕’으로 업신여김을 대하면 그 공덕으로 내 전생의 업을 녹이는 것입니다. 인욕공양으로 아상을 다스리니 업장이 다스려지고 악연이 풀리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 업신여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춰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나쁜 업을 못보는 사람은 무명 중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충돌과 저항이 왔을 때 상대방과 똑같이 충돌하면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라는 자기 점검을 통해 내 업의 보따리를 보아야 합니다.

업장을 보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업의 끈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절을 하거나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해 보세요.



제목 · 악연-선연 그림 · 조향숙

금강경 독송도 참선도 하십시오. 수행으로 업처(業處)를 보면 지극한 마음에서 참회가 나오고 아상이 녹습니다. 발원과 축원이 나오고 상생(相生)하는 마음이 됩니다. ‘함께하자’는 동행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고 또 줍니다.

상생에서 착한 인연이 나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마음은 빼앗는 마음이며 상극(相剋)하는 마음입니다. 상극의 삶에는 탐욕이 꽉차서 악연(不善)의 씨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가는 동행은 상생이며 화합의 열쇠입니다. 선연이 나오고 악연이 풀어지는 상생의 삶은 소통이며 해탈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AED보급·교육, '안전사찰' 만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17일
교구본사에 제세동기 지원

10월까지 매달4~5곳 설치
응급처치 매뉴얼·훈련필요
교육진행·현장 점검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스님들과 라이나전성기재단 관계자들이 AED 지원물품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불교계가 사찰 내 신도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본격 나섰다. 본지가 2016년 8월 심장제세동기(AED) 설치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이뤄진 움직임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묘장)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라이나전성기재단으로부터 심장제세동기 29대를 지원받아 교구본사 등 전국 29개 사찰에 이를 보급하기로 했다.

AED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묘장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AED를 지원한 라이나전성기재단은 라이나생명이 2013년 5월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2016년 8월 본지 실태조사 결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템플스테이 124곳 중 단 10곳만이 AED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응급차량 진입이 힘든 사찰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도 이후 2017년 1월 조계사가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심장제세동기 작동법 실습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이 일었다.

이날 AED전달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시간이 늦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을 해소하는데 이 협약이 가장 능률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는 "전통사찰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찾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지만 교통이 불편해 응급사태 시 위험하다. 사찰에 안전설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기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라이나전성기재단 측 관계자들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은 조계사 경내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장과 이날 함께 진행된 조계사 신도대중의 심장제세동기 사용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이후 전국 교구본사에는 10월까지 매달 4~5곳에 순차적으로 스탠드형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계의 안전시설 인프라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신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배석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B사찰의 경우 3000배를 하시던 70세 고령의 어르신이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다. 이후 사찰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며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기 설치 외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한 국내 최대 유통마트에서는 계산대 직원이 심장질환으로 숨지며 이에 대해 사측과 유가족 및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당시 이 매장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계사 AED실습교육을 진행한 권정주 대한인명구조협회 강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과 함께 AED 사용을 숙지하는 교육과 응급환자 발생 초기대응 매뉴얼, 교육훈련 등이 중요하다. 설치업체에서 AED배터리 등을 관리하지만 대중들이 작동법을 숙지해야 이 관리 또한 원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교구본사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함께 교육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찰별 민관합동소방훈련과 연계해 종무원 및 신도대상 교육,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점검 현황보고 등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배려가 장애인, 사찰로 이끈다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③ 장애인 신행활동 활성화 조건


4월 14일 조계사 스님들이 휠체어를 법당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임시경사로·카펫 설치
수화 찬불가, 입식 의자 등
배려로 신심 증장 이끌어

비가 와도,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경사로에도 장애인 불자들의 신심을 꺾지는 못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장애인불자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사 원심회·사회복지법인 승가원·사회복지법인 연화원·장애인 불자모임 보리수 아래·혜광맹인불자회 회원 등 사부대중 160여명이 함께 했다.

우중에도 이처럼 많은 장애인불자 대중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대법회에 조계사 측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었다.

젖은 흙길에는 임시 방수천이 설치되고, 내부에도 카펫이 깔렸다. 조계사는 휠체어 경사를 완화한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스님들이 직접 비에 젖은 휠체어를 닦고, 함께 법당까지 도왔다. 부족한 점자 블록판 대신 봉사자들이 손으로 잡고 함께 이끌었다. 또 수화 통역사들과 수화 합창단이 장애인 불자들이 함께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왔다. 기존에 법당에 자리한 신도들도 서슴없이 자리를 비켜줬다.

광림사 연화회 해성 스님은 "보통 사찰의 경우 기도를 하시는 보살님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등 평소에 장애인 불자들이 법당에 가도 불편한 상황이 많다"며 "기성 신도 대중이 조금씩 마음을 내줘야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 비가 와 젖은 흙길이어서 휠체어를 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방수천을 설치하는 등 배려가 좋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비록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사찰로 나와준 장애인불자들에게 감사하다. 또 함께 배려해준 일반 신도대중들에게도 감사하다"며 "하나씩 장애인불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진행된 법회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은 그야말로 장애인불자들의 눈물이 섞인 자리였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향공양을 올린 이순애 씨부터 꽃공양을 올린 시각장애인 강태봉 씨, 과일공양을 올린 발달장애인 김진상 군 등 봉사자와 함께 차례로 공양을 올린 이들은 감동 섞인 소감을 밝혔다.

이순애 씨는 "예전부터 사찰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 경사로도 놓고 좀 비좁지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회를 찾은 장애인 불자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고 공로상도 시상했다.

행사는 장애인 불자들의 발원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홍현승 보리수 아래 회원은 대표로 "혜안을 가진 아나율존자처럼, 한결같아 깨달은 주리반특처럼 장애를 수행의 벗으로 삼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신심을 담은 발원에 대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한편,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일반인들의 시각장애인 이동체험과 장애 보조 기구 체험 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단돈 만원으로 즐기는 산사의 고즈넉함

단돈 1만원으로 산사의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봄 여행주간을 맞아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봄 여행주간에 맞춰 전국 103개 사찰(수도권29·전라도24·강원도9·경상도26·충청도15)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내외국인 선착순 8000명. 예약은 5월 12일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서 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사찰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식형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체험형으로 구분된다.

체험형 운영사찰은 총 36곳이며, 휴식형 운영사찰은 산과 남해바다가 품은 해남 미황사, 수려한 전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구례 화엄사 등 67곳이 있다. (02)2031-2000

윤호섭 기자

참불선원 개원 5주년… 고승 초청 법회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법문

명상수행을 통한 서울 강남 도심포교에 앞장서는 참불선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계 고승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열고, 최근 확장한 도량 현판식도 실시했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4월 13일 개원 5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前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철산 스님,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 수좌회 선림위원 선법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숭산 스님 외국인 제자인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스리랑카 출신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재가불자 등 10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기념법회에 앞서 기존 건물 3층을 사용하던 참불선원은 최근 2~4층까지 도량을 확장한데 대해 현판식과 큰법당에 조성한 천불



점안식을 실시했다.

이날 각산 스님 은사인 보광 스님은 증명법사로 나서 즉심즉불(卽心卽佛)을 강조하고 "불지견(佛知見)은 바로 다만 너의 마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달리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고 법문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현대인은 상식이 풍부하지만 이를 지식으로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 또 지식의 인간화를 하지 않아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식의 지식화, 지식의 인간화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수행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회 말미에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도량 확장에 힘써준 신도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참선은 명상의 완성이자 종교의 귀결이다. 도량이 과거보다 넓어져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참된 불교가 참된 불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불선원은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간화선 특별 집중수행과 함께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를 참불선원서 개최했다. 법회에는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차례로 간화선맥의 근본 텍스트인 〈육조단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평화통일 발원’ 13m 괘불 조성됐다

남양주 보광사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점안

오는 4월 28일 점안법회 봉행
고려불화 기법 첫 영산회상도
탱크, 전투기 제압하는 사천왕
圖上에 광주항쟁 · 촛불혁명 그려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발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양주 천마산 보광사가 조성한 괘불탱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총 13m로 고려불화기법으로 그려졌다. 그림 아래에는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촛불혁명 등 당대 사회상이 반영된 도상들이 들어갔다.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13m 대형불화 괘불탱이 새로 조성됐다.

남양주 천마산 보광사(주지 가산)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제작 기간만 1년 7개월이 걸린 보광사의 영산회상도 괘불탱은 상하좌우 여백을 제외하고 변상도 그림의 크기만 길이 12m, 폭 6m다. 그림의 여백까지 포함하면 총 13m로 현재 괘불탱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괘불탱은 고려불화 기법으로 그려졌다. 불화를 그리기 위해 주지 가산 스님은 화은 양승태 금어장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달비춤 금어단’을 구성했다. 단원들은 양승태 금어장을 제외하고 모두 봉선사 불화반에서 수학한 아마추어들로 양승태 금어장이 밑그림을 그리면 단원들이 채색을 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대부분이 주부들이어서 평일 낮 시간대에만 작업이 가능했지만, 부처님을 조성하겠다는 간절한 발원은 어느 불모(佛母)에 못지 않았다. 이처럼 보광사 영산회상도 괘불탱은 오로지 순수한 신심으로 일궈낸 대작불사였다.

많은 무게를 견뎌야 하는 괘불탱의 특성상 재질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종이도 10년 이상 숙성된 한지를 7번 배접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가산 스님은 “숙성된 한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안료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한 번 배접에 120장이 든다. 그림에 들어간 한지만 840장, 둘레까지 합하면 950장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채색은 석채 안료를 아교와 어교에 개어서 이뤄졌다. 아무리 곱게 만들어도 삼베에는 잘 베어들지 않아 금어단 단원들은 석채를 8번에 걸쳐 올려서 색을 완성했다. 금 · 은 문양은 금 · 은가루를 3번 칠한 뒤 위에 금박을 입힌 것이다.

보광사 괘불탱 ‘월인천강 영산회상 변상도’의 도상은 매우 독특하다. 당대 사회상과 문화들이 잘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도상의 사천왕들은 부처님과 10대 제자, 보살들을 외호하면서도 인류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제압하고 있다. 사천왕의 손아귀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가 무용지물이 되며 발바닥 아래서는 155mm자주포가 힘을 잃고 있다.

그림 아래 발원을 올리는 스님을 중심으로 미국 9 · 11테러, 환경오염, 인류의 모든 인종,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 세월호 참사, 인종간의 화합상, AI, 핵실험, 교회와 모스크가 나열됐다. 그림 둘레에는 범어로 관음보살 본원진언, 문수보살 본원진언, 보현보살 본원진언 등을 써 넣었다.

이에 대해 가산 스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화는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다”면서 “보광사의 괘불탱 역시 사회상을 적극 수용해 위기에 처한 현재 인류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괘불탱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모든 폭력의 배격, 평화의 옹호,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화합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쉽고 선명한 메시지를 환희심을 일으키는 장엄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괘불탱을 보면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절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장엄의 진정한 공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 위한 국방 힘써주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비롯해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4개 군종교구(軍宗敎區)는 4월 18일 사상 최초로 4대 군종교구 합동 전방부대 위문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서해 최전방 부대인 백령도의 해병6여단과 연평도의 연평부대에서 진행됐으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 측은 이번 4대 군종교구 위문 방문을 계기로 합동 위문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이젠 불교명상 수행”

공불련 4월 28~29일 월정사서 제26차 성지순례

매회차 간화선과 염불 등 불교수행을 테마로 성지순례를 진행해 온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가 제26차 월정사 성지순례를 불교명상을 주제로 진행한다.

공불련은 4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 및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례에서는 28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가 진행되며, 법회의식 집전 강습 등이 이뤄진다. 눈길을 끄는 점은 28일 오후 9시부터 불교명상을 주제로 수행정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29일 오전 4시 30분에는 새벽예불 후 금강경 독송 및 108참회로 마무리 되며 아침 공양 후 걷기명상이 다시 진행된다.

공불련은 지난해 최초로 대구 동화사에서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입재 한 후 간화선 철야정진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법사로 입재 한 후 염불철야정진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나랏일을 즐겁게 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꾸준한 정진을 통해 공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무원 불자들이 하나씩 수행법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註解

① 자주 머리를 ~ 엉키고:

역자는 자주 將棋를 둔다. 좀처럼 실수하는 법이 없는데 어쩌다 실수를 하여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아침에 머리를 감았었다. 몇 차례 그런 후부터는 장기시합이 있기 이틀 전부터는 목욕, 머리감기를 삼간다. 옛사람의 말씀에 시험보기 전에는 목욕, 머리감기, 손발톱 깎기를 삼가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씀이다.

② 배불리 먹고 머리를 감거나 : 결과는 註解 14)와 같다.

③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등 : 頭寒足熱이란 말이 있다. 머리는 차고 발이 따뜻하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水昇火降이 되기 위한 방법이며 결과이니 그 의미는 깊고 크다.

역자는 28세 때, 일 년간 불면증으로 고생이 심하여 양한방의 모든 방법이 무효였다.

어느 날 밤 左右 申脈穴과 照海穴에 施針하니 금세 양 발목이하 발바닥 따뜻해지며 잠이 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였다. 즉 신경과로로 인하여 氣血이 頭部까지 올라 응체되어 하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足湯을 하니 효과 역시 針과 동일하였다.

《黃石公素書》에 이르기를, 발이 차가우면 마음이 상하고 백성이 원한을 품으면 나라가 상한다.(足寒傷心 人怨傷國). 발이 따뜻해야 心病과 頭病이 없는 이치거늘, 찬물로 발을 씻거나 찬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는 足寒하여 頭熱케 하므로 頭病이 생김은 당연하다.

④ 두풍(頭風): 頭痛, 神昏, 眩暈, 發熱, 不眠 등을 수반한 頭病.

⑤ 머리를 감고 ~ 쐬면 안 되고: 머리를 감은 후 바람을 쐬면 머리카락, 頭皮에 있던 濕氣가 바람의 風毒과 융합하여 열려 있던 毛孔에 바람의 힘으로 침투하여 腦에 氣血을 응체시킨다. 머리감은 후 선풍기,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행위는 病을 自招한다.

⑥ 여인은 월경 중에 ~고치지 못한다.: 여자들에게 월경 중에 머리감지 말라고 충고하였더니 대부분의 여자들이 머리를 감고 당일로 생리가 불순해진 예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⑦ 목욕할 때 물속에 ~이룬다. : 목욕, 식사, 대소변을 봄, 성교, 이러한 때는 氣가 급격하게 이동하므로 氣滯하기 쉽다. 이 때 氣滯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은 서있는 것이다. 누워서 목욕하면 자세불량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氣滯하니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목욕은 필수적으로 서서해야 한다.

○신비(腎痺): 腎氣가 제대로 行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小腹과 성기에 氣가 쌓여 위로 견고하면 큰 것을 腎痺라고 한다. -《素問 · 五臟生成篇》

⑧ 벽질(癖疾): 주로 兩肋間에 積聚가 있는 병증. 원인은 起居無度, 飮食無節, 强力作勞하여 精血이 훼손되어 邪冷之氣가 울결되어 은벽한 곳에 잠복되어 있는 증상.

⑨ 증왜창(甑哇瘡): 둥그러면서 매우 큰 형태의 피부질환으로 헐고 진물이 흐르는 증상.

⑩ 자주 목욕하는 ~훼손된 것이다. : 목욕은 몸을 청결케 하여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모르는 자는 없다. 그러나 목욕을 氣를 소모시켜 피곤케 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게 한다. 古養生書에 보면, 목욕을 자주하면 肥白해지니 최소 3일 이상에 한번 씩 하라고 하였다.

⑪ 땀이 났을 때 ~ 골비(骨痺)를 이룬다. :

1978년 8월 밤, 역자가 자기 전에 샤워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트니 더운물이 나왔다. 이때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三元延壽書》에 있는 땀이 났을 때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록 이해는 하지 못하였으나 本書의 내용 중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시험해 보고 싶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일어난 아침, 어렸을 적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같은 온몸의 포근함과 상쾌함에 놀랬다. 이후 現今까지 三伏더위에도 온수샤워를 어기지 않는다.

○골비(骨痺): 뼈가 쑤시고 아프며 관절에 경련이 오는 증상. 《素問 · 痺論》에 이르기를, 겨울철에 風, 寒, 濕의 三氣가 인체에 들어오면 骨痺가 된다. 《靈樞 · 刺節眞邪篇》에 이르기를, 虛邪가 몸 안에서 뭉쳐 공격하면 骨痺가 된다.

⑫ 옛적에 한 명의(名醫)가 ~ 가지 않았다. : 땀이 나서 腠理가 열렸을 때 寒濕한 水氣가 침투하면 骨痺를 이룬다. 그러나 寒濕한 水氣가 肌膚에 있을 때 마늘을 먹음으로써 辛溫한 藥性의 發熱發散作用을 이용하여 땀을 내어 肌膚의 寒濕氣를 배출하면 骨痺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생강차를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 땀을 내도되며 술을 먹어도 된다.

역자는 가정과 직장에 에어컨, 선풍기, 부채조차 없앤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름철에 공공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 에어컨과다로 인하여 냉방병증상이 多少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 뜨거운 햇빛을 받아 땀을 내면 증상은 즉시 소멸되어 원상태를 회복한다.

○촉지(蜀地): 지금의 泗川省일대의 成都, 龍安, 潼川州, 雅州, 保寧이다.

⑬ 불볕더위로 ~ 목욕이야? : 건강 원리는 水昇火降이다. 水昇火降이 되면 손, 발, 아랫배는 따뜻하고 가슴과 머리는 서늘하다. 이와 반대로 손, 발, 아랫배를 차게 하면 水昇火降이 失調되어 百病이 생긴다. 인체의 氣를 찍는 의료용진단기로 자기공명장치(M.R.A)가 있고 킬리안 카메라가 있다. 건강한 사람의 손, 운동직후의 손을 찍으면 강한 오라가 분출되는 것이 찍히는데 찬물에 씻고 찍으면 오라도 많이 사라지고 氣의 양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온다. 찬물은 氣血을 응체시키니 몸에 해롭다. 그러므로 운동직후에는 손을 씻지 말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손발은 체온보다 따뜻한 물에 씻어야만 한다.

○70년대 후반 전남의 某건전지그룹2세인 20대 회장이 여름 음주 후 강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목욕하던 사람이 즉사한 예는 지금도 TV와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목욕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히 유해한 방법이다.

⑭ 눈에 병이 있을 때 ~ 멀게 된다.

역자는 본시 시력이 좋았으나 3년 전부터 악화되어 안구건조증상이 생겨 고생하였다. 그러나 1년 전부터 본서를 번역하던 중, 본 구절을 읽고 나서부터 매일 하던 머리감기를 3~4일에 한 번하니 나날이 호전되어 지금은 거의 완치되었다.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⑦

경원 스님 대전 카톨릭대학 성모병원 영적돌봄가

손 잡아주고 부처님께 기도…“매 순간 배운다”



2016년 상반기, 경원 스님은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했다. 강원시절 화엄반에 있을 때, 학장 스님이 울산에 있는 정토마을 호스피스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기회는 마땅치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되고, 그 해 여름 울산의 정토마을에서 ‘생사의 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렇게 스님은 영적돌봄가로 거듭났다.

“영적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영적돌봄을 시작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기에 생사의 고통 속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잡아드릴 뿐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손을 잡아드리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돌봄을 하며 봉착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경원 스님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죽음의 무게에 대해 새로 알게 됐다고 한다. 2017년 여름,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던 한 처사님이 그 계기였다. 처사님은 생을 다했고, 스님은 기도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장례식장 작은 빈소에는 가족들이 조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죽음의 무게가 새삼 다가왔다. 불가서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 하지만, 남겨진 누군가에겐 너무도 아픈 슬픔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처음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정토마을 능인 스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다. 능인 스님은 경원 스님의 두려움을 알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며, 그 누구보다 순수한 분들이라고 말해주셨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능인 스님의 설명을 들은 뒤로는 경원 스님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원 스님은 앞으로의 목표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영적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봉사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도 영적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원 스님의 목표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어르신의 손짓이 여유롭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서 커피 트레이너로 거듭난 어르신들이 일반인들에게 핸드드립을 가르치고 있다.



희유 스님과 관계자들이 함께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새 현판 앞에서 관계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커피로 빚낸 인생 3막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가비방’ 개소 현장

〈가배+가피 합성어〉

글=박진형 · 사진=박재완 기자

“아이스로 드릴까요? 진하게?” 실버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의 가비방. 그곳의 나이 지긋해보이는 어르신은 한마디 질문을 던지고 익숙한 듯 빠르게 그라인더로 커피콩을 갈았다. 부드럽게 갈린 커피콩을 포터필터에 담아 템핑하고, 기계에 꽂자 진한 에스프레소가 흘러나왔다. 어르신이 내려준 커피에선 유명 카페 못지않은 깊은 맛이 느껴졌다.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과 대형 자동로스터기. 어쩌면 백발의 어르신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비들이지만, 그 앞에는 바리스타로 거듭난 어르신들이 당당히 서 있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는 4월 17일 어르신을 위한 커피 전문 훈련소인 커피랩실 ‘가비방’을 개소했다. 가비방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2대와 자동로스터기, 자동/수동 그라인더, 온수기, 핸드드립 도구 등 최신 장비가 구비됐으며 최대 15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가비방은 커피의 한문 음차인 ‘가배(D　)’와 불교용어 ‘가피(加被)’의 합성어다. 이전에는 사설기관에 위탁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지만, 가비방이 새로 개소하면서 센터에서는 실습 뿐 아니라 자격증 발급, 연습장소 대관까지 가능해졌다.

센터는 2010년부터 실버바리스타 양성 훈련 과정을 개발해 어르신을 위한 커피 입문과정을 지원해왔다. 처음 과정이 생겼을 때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라는 직종을 낯설어했으나, 이제는 매년 10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올해 25명을 모집하는 커피학교 입문과정도 금세 인원이 차 마감됐다. 이제는 센터를 통해 바리스타가 된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어르신들은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우울하고 무기력하던 삶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증언했다. 센터서 바리스타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재 마로니에 플러스 카페서 바리스타로 활동 중인 김선희(62) 어르신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많이 힘들었다. 그러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고 주저 없이 참여했다. 회사에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알게 됐다. 지금은 커피를 만드는 게 너무 즐겁다”며 “우리 나이 때는 우울함이나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꼭 취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커피를 배워보길 바란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바리스타가 된 이후, 매일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비방의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입문부터 △바리스타 프로 △로스팅 실전 △핸드드립 실전반까지 다양하다. 입문과정은 커피학 개론부터 시작해 에스프레소 추출, 밀크 스티밍, 푸어링과 아트까지 배울 수 있다. 가장 고급 과정인 프로 과정에선 라떼아트같은 고급 기술과 핸드드립 개론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장비사용법’을 따로 배워 커피 기계의 결함 등에 대처도 용이해진다. 이 프로과정을 이수하면 실습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어르신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트레이너도 될 수 있다. 로스팅 실전반은 다양한 원산지별 생두, 로스팅 장비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해 원두를 감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핸드드립 실전반을 통해서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담은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 수 있다.



고난이도 핸드드립도 쉽게 해내는 어르신들.

어르신에 바리스타 교육

커피 트레이너 과정도…

우울하고 무기력하던 황혼

커피 내리면서 보람 찾아

자녀들도 활기차게 바뀐

부모님 모습에 감동 받아

2월 22일 커피학교에 입문해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을 배운 신명자(72) 어르신은 아들이 사다준 커피콩을 활용하고 싶어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게 됐다고 한다. 신 어르신은 “처음에는 커피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다가 바리스타 과정을 듣게 됐고 이제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다. 아들은 이런 날 보고 ‘참 자랑스럽다’고 말한다”며 “배움이 나의 역동적인 삶과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일을 그만뒀을 때 내 세상은 컴컴하고 우울했다. 하지만 이젠 매일 양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차에 관심이 많았던 김명옥(66) 어르신도 이제는 커피에 푹 빠졌다. 조계사 앞 전통찻집에서 2년을 넘게 근무한 김 어르신은 라떼를 배워보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센터서 커피를 배우게 돼 지금은 바리스타 전과정을 이수하고 트레이너과정까지 마쳤다. 김 어르신은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이 모두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들이라 즐겁다. 전통차를 만들 때는 큰 찜통을 운반하는 등 고단한 일이 많았는데, 커피는 그런 게 전혀 없어 훨씬 편하다. 지금은 커피 맛에 완전 적응했다.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일하는 모든 과정이 보람차고 즐겁다”고 웃어보였다.

가비방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당당하고 활기가 넘쳤다. 커피를 내릴 때의 눈빛은 열정 가득한 이십대 못지않았다. 중생을 두루 비춘 부처님 가피처럼, 가비방서 흘러나온 커피 향은 종로 일대를 두루 향긋하게 만들었다.

Interview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장 희유 스님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가 올해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 또한 확대됐습니다. 훈련만이 아닌 종합적인 어르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가비방 개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비방 개소식에 앞서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장 희유 스님〈사진〉은 어르신들에게 바리스타라는 새 직업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사립학원 못지않은 체계적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희유 스님은 “이전에는 실버바리스타만 배출했다면 커피를 둘러싼 로스터, 트레이너 등 커피 관련 다양한 직종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 또한 어르신들의 많은 경험과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실제로 가비방에서는 기본 바리스타 과정과 더불어 기존 활동하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 과정도 운영한다.

희유 스님은 “종로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더불어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열린강좌

“나를 관찰하고 바로 보면 삶 바뀐다”

주제 : 마음챙김으로 변화를 경험하라

이성동 정신과 전문의



이성동 전문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신과 수련 과정을 밟아 정신과 전문의가 됐으며, 현재 서울 명일동 소재 M의원 원장으로 있다. 저인 현상, 의식, 명상, 선, 종교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선과 뇌의 향연〉, 〈선과 뇌〉, 〈달라이라마-마음이 뇌에게 묻다〉 등이 있다.

서양은 가히 ‘마음챙김’ 열풍이다. 그 열풍의 중심에는 조셉 골드스타인의 〈마인드풀니스〉가 있었다. 그 파급력은 한국에까지 전해져 〈마인드풀니스〉를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렸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4월 17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이 책을 한국판으로 번역한 이성동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이성동 전문의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마음챙김)로 삶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전문의는 “마음챙김 수행을 할 때는 나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흡-몸-느낌-마음-법의 순서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저는 오늘 조셉 골드스타인이 쓴 〈마인드풀니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사띠(sati)에 대한 한 수행자의 기록입니다. 〈염처경〉이라는 사띠 수행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힌 경전을 통해서 자신의 사띠 수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인드풀니스(Mindfullness)’라는 말 자체가 불교적인 뜻을 표현하기 위한 조어에 가깝습니다. 집중이라든지 유심히 생각한다든지 하는 의미입니다.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사띠의 번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띠(Sati)란 무엇인가

사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띠가 있으면 어떤 영적인 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사띠는 ‘기억한다’는 뜻인데 ‘메모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띠는 지금 마인드풀니스로 정착돼 ‘사려가 깊다’ ‘의식이 깨어있다’ 등의 의미도 지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살려낸 그 의미는 순수한 집중의 의미, 그 자체를 보는 것이지 생각을 붙여서 보면 안됩니다.

우리는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고, 법을 바라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의 사띠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띠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염처경〉은 달리 보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과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법에 대한 마음챙김을 해야 합니다. 정형구의 반복을 통해서 붓다는 수행의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서 붓다는 수행의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의 체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안다는 것과 외적으로 안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가 직접 수행해 직접 알 수 있는 수행방식입니다. 외적으로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수행한다는 뜻이며 내외적이라는 것은 앞의 두 가지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마음챙김

본격적으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것입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숨을 내쉬면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만 잘해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으며 16개 단계로 올라가면 깨달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호흡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어려우니 자세부터 한 뒤, 활동하고 호흡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체 특성에 대한 마음가짐에서는 해부학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경전에는 머리카락, 피부, 살, 근육, 늑막, 창자 등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침, 관절까지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깨달은 분들은 우리 몸에 대한 명상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보고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처경 수행에서 외국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가래나 침 등 더러운 것을 들여다보라니. 서구인들은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장을 들여다보고 손톱이나 오줌을 들여다보라고 열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마음챙김
호흡·몸·느낌·마음·법 순
알아차려야 제대로 인식해

염처경을 들여다보면 불교의 핵심이 다 나옵니다. 주마가편격으로 소개하자면 불교의 핵심이론은 사띠의 느낌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솜씨 좋은 도축자가 우리의 몸을 도축된 소로 생각하고 우리 몸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보는 것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관찰할 때는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서 시체를 보고 부패하고 썩는 과정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이제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느낌을 보라고 하는데,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이차적인 관념이나 개념이 섞이지 않은 느낌 그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느낌에 이차적인 것을 붙이지 않고 느낌 자체로 보라는 것이 사띠입니다.

다음으로 세간적인 느낌과 출세간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세간적인 느낌은 감각의 접촉에서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냄새나고 맛을 느끼는 그런 대상과 생각에 의존한 것입니다. 출세간적인 느낌은 아주 다른 그 무엇인데 이것은 금욕과 연관된 느낌입니다. 여기서 금욕이란 무엇인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이라는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끝으로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염처경〉에서 이 마음챙김의 마지막 토대는 정신적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즉 장애들, 감각처들 깨달음의 요인들과 사성제등을 가르침의 구성원리로 열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띠하는 마음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다섯 가지 장애는 감각적인 욕망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혐오, 나태와 무기력, 들뜸과 회환, 의심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면 나에게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욕망이 없을 때 없음을 알고, 욕망 있음과 없음을 조건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성향으로 발전하고 족쇄로 발전합니다. 낮은 단계의 족쇄는 의심 집착 등입니다. 높은 단계의 족쇄는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이나 무명 등입니다. 이 역시 마음챙김, 사띠를 해서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 붓다는 5온의 관찰명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5온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관찰 명상을 이용해 우리의 체험을 분석하고 자아를 와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여섯 가지 감각 영역에 대한 마음챙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육내외처, 즉 내적인 것은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고 외적영역은 보이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정신적 대상입니다.

다음 절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즉 7각지에 대한 마음챙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붓다의 고유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챙김, 분별력, 정진력, 환희, 고요함, 집중, 평정입니다. 붓다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불만족스런 것을 만족스런 것으로 간주하고, 환희와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집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평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각지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띠의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집중으로 들어가고, 사마띠로 들어가는 것을 7각지라고 하고 사띠가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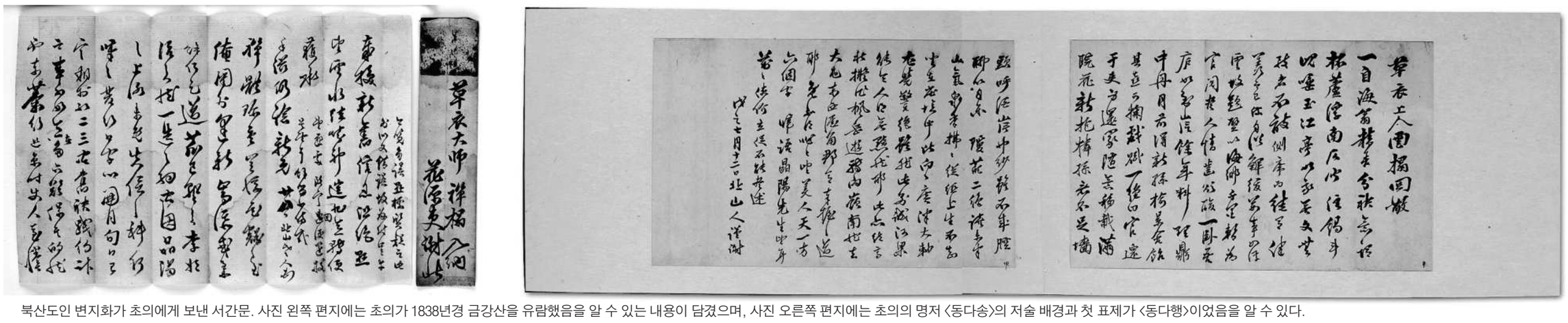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늘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돌아보면서 사띠하자는 것입니다. 8정도의 가장 중요한 정견과 정사유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환희의 즐거움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성찰하는 것으로 사띠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네 가지 집중에 대해 전개됩니다. 초선에 의해서도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2선 3선 4선도 사띠를 바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평정입니다. 평정은 무지에서 나오는 평정이 아니라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평정이라 하고 마지막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을 계발하는 방법도 모두 4성제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고집멸도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8정도는 올바른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팔정도는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이므로 정견을 통해 정사유가 중요하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과 정정의 법에 대한 분석적 탐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2500년 전에 나온 이와 같은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수행의 단계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염처경〉에서는 사띠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행의 단계를 밟아가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부처님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몸에서부터 하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몸을 강조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에서 몸에서 느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산도인 변지화가 초의에게 보낸 서간문. 사진 왼쪽 편지에는 초의가 1838년경 금강산을 유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진 오른쪽 편지에는 초의의 명저 〈동다송〉의 저술 배경과 첫 표제가 〈동다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다송 저술 배경 확인되는 서간문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⑧ 제8회 북산도인 변지화가 보낸 편지

조선 후기 관료 변지화는 초의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북산도인(北山道人)이란 호를 썼으며 1832~1837년경까지 진도목사를 지냈고 홍현주(1793~1865)의 별서를 출입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생애를 조명할 자료는 초의와 주고받았던 몇 수의 시문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가 1832년경 진도목관으로 부임된 후 초의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1838년 7월,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해옹(홍현주)의 정사에서 서로 헤어지고 나서 마음은 작은 배에 실려 남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변지화와 초의가 만난 시기는 이미 1831년경 해거도인 홍현주의 청량산방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밖에도 두 사람의 교유 흔적은 〈초의시고〉에도 남아 있다. 바로 1832년경 초의가 변지화의 시에 화답한 수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이들의 교유는 1831년경에 처음 만난 이후 변지화가 진도 목관으로 부임한 1832년경이 후 더욱 내왕이 잦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1838년 7월,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전형적인 간찰 형식을 갖춘 편지인데 크기는 24.9×39.5cm이다. 이 편지의 상단에 "초의스님 앞에 삼가 올립니다(草衣上人雲榻回敬)"라고 썼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한번 해옹(홍현주)의 정사에서 서로 헤어지고 나서 마음은 작은 배에 실려 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얼핏 풍문으로 듣자니 두현(斗峴)에 머물며 옥강정(玉江亭)에서(시를)읊조린다고 하니 나처럼 문체도 없고 이룸도 없는 사람은 곁에 자리할 수도 없으니 공연히 부러워할 뿐입니다. 제가 벼슬을 그만 두고 나니 모든 일은 뜬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벽에 제(題)하길 '해향 천리로 잠시 관직에 나갔더니 인정이 다하자 이가 시큰거립니다. 한번 나의 집에 누우면 피안에 이른 듯하니 남은 생은 솥에 단약을 요리하련다. 달포 전에 새로 손자를 얻어 늙어 가까이 노니 그 즐거움 잡을 만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스개로 부(賦) 일절을 지었습니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마음 가는 대로 뜰 가득 꽃을 심었네.
처음 품에 안은 건장한 손자, 보는 것으론 부족해
담장 끝 언덕, 사모(紗帽)한 이에게 술 가져오라 하네.

비록 곡조를 이루지 못했으나 애오라지 그대로 스스로 즐겁습니다. 경파(옥같이 아름다운 꽃)두 절은 반도 읽지 못했는데, 산 기운 서늘하고 맑은 샘 향기가 풀풀 종이에 피어나니 더러운 데 앉아 있는 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넓은 대축(大軸)은 더욱 놀랠 절구임을 알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말 다리 위에서의 이별은 사람으로 하여금 암담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또한 가을을 기다렸다가 풍악(금강산)을 유람하고 영남으로 가는지, 그런 후 대둔사(大芚寺)로 가셨는지요. 동쪽과 서쪽 끝에서 어떻게 손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면할 수 없으니 돌돌." 하늘 끝에 미인을 사모한다(望美人天一方)"는 여섯 글자는 돌아가 정양선생에게 말하시길 바랄뿐입니다. 전령이 서서 재촉하기에 다 말할 수가 없군요. 1838년 7월 12일 북산인 변지화 삼가 올립니다.

草衣上人雲榻回敬

一自海翁精舍分袂 意謂杯蘆浮南 仄聞住錫斗峴 唾玉江亭 如我無文無致者 不敢側席 而徒有健羨而已 僕自從解 萬事如浮雲 故題壁 以海鄕千里 暫爲官閑 盡人情齒欲酸 一臥吾廬 如到岸 餘年料理鼎中丹 月前得新孫 楡景舍飴 其喜可 戱賦一絶曰

官還于吏身還家
隨意移栽滿院花
新抱?孫看不足
墻頭呼酒岸中紗

雖不成腔 聊以自樂 瓊 [二絶 讀未半 山氣泉香 拂拂從紙上生 不知坐在塵埃中 比向日廣泮大軸 尤覺警絶 雖然 此別誠河梁 能令人得無 然耶 此亦待高秋 擬作楓岳遊 轉向嶺南 然 去大芚 東西涯角 那有奉握之道耶 免不得_ 望美人天一方 六個字歸語晶陽先生望耳 萬萬 使价立促 不能盡述 戊戌 七月 十二日 北山人 謹謝

이 편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는 1831년 홍현주의 별서에서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의가 1838년경 금강산 유람한 내용이 이 편지에서 확인된다. 당시 초의는 수홍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했는데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해 상경한 초의를 위해 유산 정학연은 초의와 인연이 있는 명사를 불러 긴 여정을 떠나는 초의를 격려했다. 변지화도 이런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얼핏 풍문으로 듣자니 두현(斗峴)에 머물며 옥강정(玉江亭)에서 (시를)읊조린다고 하니"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두현은 바로 마현이다. 유산 정학연이 거주하던 곳이다. 당시 초의는 수종사에 머물며 경화사족들과 즐거운 시회를 열어 서로의 높은 뜻을 공유했던 것이다.

> 초의와 동시대를 산 변지화
> 주고받는 시문 몇 수가 남아
> 동다송 첫 표제 '동다행' 확인
> 佛·儒 교유, 초의 저술 영향

한편 변지화는 1838년경 진도 목사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적으로 이 시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초의에게 지은 시를 보내 자신의 뜻과 이상을 공유하고자 했으니 이는 "지난번 넓은 대축(大軸)은 더욱 놀랠 절구임을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서로의 향상을 빌었던 이들의 우정은 유불 교유의 아름다운 흔적이라 하겠다.

정양 신태희(晶陽申泰熙)는 해남 현감을 지냈던 인물로, 초의와 교유했다. 그의 생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관 출신으로 변지화와도 가까이 내왕했다. 이들의 아름다움 교유의 흔적은 1837년경 변지화가 진도 목사로 재임할 당시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난다. 변지화가 진도목사 시절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화원의 관리가 보내는 글(花源吏 謝狀)"이라 시작된다. 편지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화원리 사장.

묵은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소식이 막히고 끊어졌지만 스님을 잊지 못하여 한갓 마음만 수고롭게 갈 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인편에 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새해 설날에 선체(禪體)가 진중하시다니 어찌 지극히 위로되고 후련해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관문 밖에서 새해를 맞으니 나이가 더해짐에 감기까지 심해졌습니다. 나머지는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를 마치고 짐까지 다 쌌습니다. 그러나 한번 간다는 약속은 그 사이에 정양이 한양으로 상경하는 바람에 신의 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탄식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떠날 날짜는 다음달 10일로 이미 정해졌으니 초 2, 3일 사이에 기약하여 소매를 떨치고 약속을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일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또한 그 일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다행〉을 한양으로 보낼 때 사람을 시켜 급하게 등사하였기에 지금 보니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질의를 표시해 놓은 것 이외에도 또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보냅니다. 잘못된 곳을 개정하시길 바라며 돌아오는 인편에 다시 보내주길 바랄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법식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1837년 28일 북산노인(卞持華) 둔

花源吏 謝狀

歲換新舊 信息阻絶 懸望雲水 徒勞神往 非意轉便 獲承手滋 仍諗新元 禪體珍重 豈勝慰豁之至 俺關外逢新 齒添感 餘何足道 茶已熟矣 李將治矣 然一造之約 間因晶陽之上洛 未免失信之科 何嘆何嘆 發行日字 以開月旬日已定 期於初二三間 奮袂踐約計 而事不如意者多 亦難保其的然也 東茶行送京時 使人急謄 今覽多誤 懸標質疑而此外似又錯誤 故 爲付呈 幸望逐處改定 回便 還投是望耳 餘留 不備式 廿八日 北山老人 頓

이 편지는 〈동다송〉의 저술 배경을 밝힌 편지이다. 1837년에 초의는 홍현주의 요청으로 〈동다송〉을 저술했으며 초의에게 홍현주의 궁금증을 전달한 사람은 바로 변지화였다는 사실도 이 편지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변지화는 진도목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고, 정양 신태희와 함께 초의를 만나러 간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처지였다. 물론 이 약속은 정양 신태희가 상경하는 바람에 이행되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를 못내 아쉬워한 것은 변지화였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 진도목사 임기를 마치게 될 줄은 몰랐던 듯하다. 한편 이 편지는 초의의 〈동다송〉의 저술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편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초의의 〈동다송〉이 처음 저술될 당시에 표제는 〈동다행〉이었다는 사실도 이 편지에서 밝혀진 것인데 그 내력을 살펴보면 이렇다.

초의는 〈동다행〉을 지어 변지화에게 보냈으며 변지화가 다른 사람을 시켜 〈동다행〉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필사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외에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동다행〉을 한양으로 보낼 때 사람을 시켜 급하게 등사하였기에 지금 보니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질의를 표시해 놓은 것 이외에도 또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보냅니다. 잘못된 곳을 개정하시길 바라며 돌아오는 인편에 다시 보내주길 바랄뿐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동다행〉이 〈동다송〉으로 표제가 변경된 연유가 무엇인지를 밝힌 자료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다도를 알고자 한 홍현주의 뜻을 초의에게 전달한 것도 변지화였으며, 완성본 〈동다행〉을 홍현주에게 전달한 이도 변지화였다는 것이다.

바로 〈동다송〉는 변지화와 초의, 그리고 홍현주 등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유불의 깊은 교유가 〈동다송〉을 저술하게 한 동인이었음을 밝힌 자료인 것이다. 자료의 중요성은 이처럼 명백하다. 한 장의 편지에서 조선 후기 차문화사의 근저가 되는 〈동다송〉의 저술 배경이 밝혀졌으니 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무판벽에 꽃피운 사찰벽화의 향연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⑧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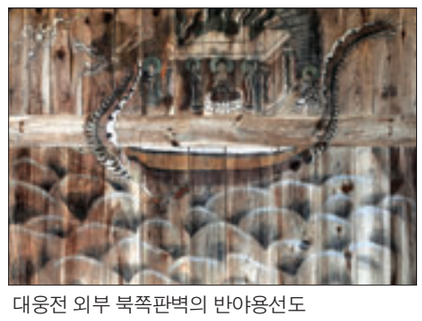


대웅전 내부 빗반자에 그린 주악 · 공양비천과 도교의 선인, 달마, 문수보살 벽화



대웅전 외부 동쪽판벽의 사자 탄 문수보살도

희귀한 법당외부 판벽화의 대표작
내부 빗반자에 화조도와 정물화 그림
새우, 게, 잉어 타고 바다 건너는 선인
외벽에 호법신중과 보살, 연화화생도



대웅전 외부 북쪽판벽의 반야용선도

내외부 판벽에 조영한 44점 판벽화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은 영조 16년(1740년)에 중건된 건물이다. 장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법당 내외부에 걸쳐 풍부한 판벽화를 경영하였다는 데 있다. 법당 내부 천정의 빗반자 벽화는 전국에 걸쳐 전통사찰에 두루 나타나지만, 외부 판벽화 조성은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그것은 자연 풍화에 취약한 내구성을 지닌 나무 소재의 물리적 속성에 따른 것이다. 불전건물 외부판벽에 의미 있는 벽화가 현존하는 곳은 서너 곳에 지나지 않는다. 문경 대승사 극락전과 명부전, 김천 청암사 대웅전, 의성 고운사 연수전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광사 대웅보전의 외부 판벽화는 희소한 사례들 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미학성, 교의성, 벽화 소재의 다양성 등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보광사 대웅전에 조영한 판벽화는 모두 44점이나 된다. 내부 빗반자에 34점, 외부 판벽에 10점을 조성했다. 내부 34점 빗반자 벽화를 그림 소재별로 분류해보면, 주악 및 공양비천도가 12점이고, 보살과 나한, 선인도가 8점, 꽃 · 나무 · 새 및 정물화가 14점이다. 절반이 19세기 조선후기 사회에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민화의 제재들이다. 천정 빗반자에 주악, 공양비천도 조성은 보편적인 양식이지만, 민화풍의 화조도라든지 게, 새우, 물고기 등의 그림들은 의외의 소재들로 여겨진다. 특히 소반 위에 난초 화병과 종이, 채소, 생선 등을 묘사한 정물화 양식은 인상적이다. 귀한 그릇과 꽃 · 채소 등을 정물화 형식으로 그린 민화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를 연상하게 장면이다.

주악비천, 도교 선인들의 판타지

주악비천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은 박, 북, 생황, 비파, 대금, 피리 등 타악기와 현악기, 관악기를 망라한다. 비천(飛天)의 머리 위를 한 바퀴 감고 펄럭이는 표대(飄帶)가 음악의 선율이나 무용의 리듬 감각을 전달한다. 표대는 하늘을 나는 비천 고유의 조형 표현으로써, 넓고 긴 띠로 표현한 공간이동의 날개 역할을 한다. 표대의 대범한 율동적인 표현을 통해 비천의 운동에너지와 음률의 파장을 시각화 한다. 채색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중심 색채는 주황색과 청색, 흰색으로 발색의 선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점의 비천 별지화 중에서 공양비천은 하나의 화면에만 나타난다. 해맑은 표정의 동자가 커다란 수박을 바구니에 담아 머리에 이고 가는 장면을 그렸다. 수박 공양 장면은 뜻밖의 신선함을 제공한다. 수박을 공양 올리는 비천벽화는 범어사 팔상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에서도 볼 수 있다. 영천 은해사 대웅전 포벽이나 백흥암 상벽 나한도 등에서는 정물화 장르로 나타난다.

대웅전 빗반자 별지화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그로테스크한 선인들을 표현한 벽화일 것이다. 선인들을 그린 화풍에서 민화의 소재로 통용한 〈요지연도(瑤池宴圖)〉의 부분인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나, 혹은 도교의 여덟 신선을 그린 '팔선도'의 분위기가 흐른다. 해상군선도는 서왕모가 요지연에서 베푸는 천도(天桃)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신선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민화로 표현한 그림이다. 해상군선도에서 신선들은 사슴이나 당나귀, 소, 거북 등을 타고 약수라는 바다를 건너지만, 이곳에선 과장되게 크게 부각한 새우, 게, 잉어 등을 타고 하늘의 바다를 건넌다. 그 중에는 달마선사가 갈대 가지를 꺾어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달마도해(達磨渡海)'의 장면도 보인다. 도교의 선인들과 불교 선승들이 함께 등장해서 판타지의 세계를 펼쳐 놓았다. 새우와 게, 잉어 속에는 입신양명 등 인간의 현실적 욕망과 염원이 담겨 있다. 선인들이 잉어, 새우의 수염을 잡고 방향을 부리거나 손에 여의(如意) 줄기를 쥔 것으로 봐서 염원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드물게는 게, 새우, 조개 등은 진리를 감추고 있는 해장보궁의 수호신장으로도 등장하기도 한다. 통도사 응진전의 향우측 불화 속에 그 장면을 볼 수 있다. 수생생물을 타고 있는 세 선인은 모두 맨발이고, 또 머리털과 수염 또한 덥수룩해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야성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무애의 해탈 경지와 연결되는 이미지다.

불로장생과 수복강녕의 팔선도

팔선(八仙)은 여덟 분의 도교 신선을 말한다. 민화 등에서는 대체로 남자 7명, 여자 1명으로 표현한다. 보광사 대웅전 빗반자에 보이는 팔선은 여동빈과 한상자, 남채화 세 분으로 추정된다. 여동빈은 당나라 때 실존인물로 벽화에서 등에 칼 모양을 메고 있는 신선이다. 여동빈의 검(劍)은 모든 번뇌를 끊는 마음의 검, 심검(心劍)으로 여긴다. 한상자 역시 9세기경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다. 항상 피리를 불고 다니는 젊은이로 묘사한다. 벽화 속에선 대금을 불고 있는 터벅머리 총각으로 그렸다. 한상자의 피리 소리는 만파식적처럼 만물을 소생하게 한다고 전한다. 꽃바구니를 들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있는 신선은 남채화다. 김홍도의 8폭 군선도(1776년)에선 불로초 영지를 허리춤에 매달고, 괭이에 꽃바구니를 매단 꽃의 여신으로 등장한다. 벽화에선 불로초를 바구니에 담아 뒀다. 남채화는 여장을 한 남자 신선으로도 알려진다. 벽화에선 보살처럼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팔선은 시대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른 인물을 신선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노자나 관우, 달마, 하마선인 등이 신선의 반열에 오르내렸다. 하마선인의 '하마(蝦)'는 두꺼비를 뜻한다. 곧 '두꺼비 신선'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도교서적 〈신선전(神仙傳)〉에 의하면 하마선인 유해(劉海)는 세 발 달린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 두꺼비는 그를 세상 곳곳에 데려다 주지만, 한 번씩 우물가로 도망쳐 숨어버리곤 한 모양이다. 그때마다 유해는 다섯 개의 엽전이 달린 끈으로 두꺼비를 낚아 올렸다. 벽화는 두꺼비를 낚아 올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의 내부벽화,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빗반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도교신앙의 신선들은 불로장생과 수복강녕의 복록을 상징하지만, 유유자적과 걸림이 없는 자유분방함을 기조로 하는 점에서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불교 무애의 사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법당 내부의 신선도 벽화 장엄은 인간의 원시적 기복신앙과 도교의 신화적 판타지 세계를 대중의 근기에 조응하는 불교의 방편지혜로 수용한 한 시대 산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야용선, 깨달음의 배

대웅전 외부 판벽화는 불교 장엄미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무 재질의 판벽에 규모를 갖춰 조성한 외부 판벽화는 나무 재질의 특성상 희소성의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외벽의 판벽화 역시 불교 교의를 반영한 장엄과 민화풍의 그림 소재들이 섞여 나타난다. 특히 동쪽 벽면의 위태천 벽화와 사자 탄 문수동자도, 북쪽 판벽의 반야용선도와 연화화생도 등에서 뛰어난 회화능력이 드러난다. 위태천은 불법의 진리를 수호하는 '화엄성중'이다. 신중탱화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불법수호의 핵심신중으로 모신다. 장군이면서 '동진보살'로도 호명하는 보살의 지위에 있다. 벽화에선 날개 장식의 투구를 쓰고 갑옷 무장을 한 채 당당한 모습으로 서있다. 온 몸을 휘감고 내리는 표대 자락에선 신령한 붉은 기운이 이글거린다. 지물로 삼지창 모양의 금강저를 쥐었다. 금강저는 모든 번뇌 망상의 싹을 단칼에 자르는 지혜의 상징물이다. 불국사 극락전 불단에선 연꽃 위에 봉안하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 수미좌에도 흰색 금강저 조형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만고불변의 강력한 진리의 힘을 드러낸다. 그에 비해 사자를 탄 문수보살을 표현한 벽화에선 부드러움과 천진난만한 분위기가 흐른다. 문수보살은 연꽃을 들었고, 사자는 해맑게 웃고 있다. 문수보살 조형에 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은 해학성이 묻어나는 파격적인 장면이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등에선 내부벽화로 만날 수 있다.

뒷벽의 반야용선 벽화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 극락정토로 향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왕생자 없이 다섯 분의 불보살만 표현했다. 선수에는 길잡이의 왕인 인로왕보살이, 선미에는 지장보살, 그리고 휘장을 두른 배의 중간에는 아미타삼존불이 계신다. 벽화에서 용의 보주는 반야용선의 본질을 환기시킨다. 보주는 깨달음이자 반야, 곧 지혜의 메타포다. 그것은 반야용선이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 마음 속 깨달음의 배임을 일깨운다. 외부벽화는 벽화끼리의 내용적 연결을 통해 지속적인 가르침으로 이끈다. 위태천의 금강저로 번뇌의 싹을 자르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 관음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여 극락정토에 연화화생하는 자타일시성불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작가〉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윤리는 공동체의 부를 창출한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⑧ 나쁜 놈도 돈을 버는 세상



그림 · 박구원

나쁜 놈도 돈을 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는 안심했다. 행운이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했듯이 말이다. 불교의 경제관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교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라고 말했다면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과는 맞지 않구나 하고 시큰둥했을거다. 이런 식의 동화 같은 비현실적 주장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행운이 작용해야 돈을 벌고 나쁜 놈도 돈을 버는 현실을 직시하는 불교의 경제관이야말로 시장자본주의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하에서 신음하는 현대인에게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나쁜 짓을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근거해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에 관한 논리를 전개한다. 아담 스미스야 말로 자유시장경제의 멘토이며 자유시장경제의 기수이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장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고 기업과 소비자가 각자의 이기심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맞는 말이지만 아담 스미스는 더 중요한 말을 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두 번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는 그보다 윤리를 더 강조했고 〈도덕감정론〉이라는 저서까지 냈으며 우리에게 유명해진 〈국부론〉보다 〈도덕감정론〉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기심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기심보다 윤리가 더 중요하고 윤리의 제약 없는 이기심의 발동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윤리가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막스 베버가 경고한대로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이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 만이 아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앞서서 자유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상 모든 구두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만약 법이 이러한 구두계약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게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보증금을 내야할지 모른다. 알고 보면 끔찍하다. 법의 뒷받침은 자유시장경제의 곳곳에서 필요한데 문제는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내용은 법으로 규율하기엔 부적절하기에 윤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법을 완성하는 것이 윤리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법도 필요하지만 윤리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옳다는 견해를 갖는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의 견해다. 불교의 윤리관은 어떤 견해일까? 경전에 불교의 윤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의는 〈잡아함경〉에 설해져 있다. 잡아함경에는 '만일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는가?' 고 쓰여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쓰여있고 논어에도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러한 윤리기준은 인류 보편적인 윤리규정이 될 수 있을까? 유엔이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기준에 대해 고민한 끝에 전 세계의 유명한 윤리학자와 종교인들을 규합해서 첫번째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첫 번째 윤리기준은 흔히 윤리에 관한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즉 '네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다. 윤리의 황금률은 불교, 유교, 기독교의 윤리관과 동일하다.

법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넓고 구체성이 결여되며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윤리는 이처럼 법제화가 어려운 사회규범을 담고 있다. 우리가 동네 가게에 들려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배달해달라고 하면 가게는 당연히 배달해준다. 배달 안해줬다가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거래는 물건 배달 안하고 돈만 꿀꺽하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윤리가 필요하며 윤리가 바로 선 나라가 자유시장경제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신기해한다. 미국에는 그런 일을 꿈꾸는 범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범죄인 것이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사기범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을 법과 윤리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불자가 앞장 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야마의 베스트셀러 '신뢰(trust)' 라는 책을 보면 신뢰가 결여된 사회로 한국을 들고 있다. 신뢰가 결여된 사회는 경제활동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윤리없는 경제, 천민자본주의
사회공동의 이익 위한 근간
법과 윤리 확립에 불자 앞장서야

아무리 옳은 윤리지침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불교윤리를 불자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지만 윤리는 남이 욕해도 눈 딱 감고 버티면 그만이다. 얼굴 뻔뻔한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윤리란 어쩌면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불교윤리는 업사상에 기초한다. 업사상을 부인한다면 불자가 아니다.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업사상을 믿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할 수 없다.

업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할 이익이 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착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비윤리적 행위는 반드시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니 험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 손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불교교리를 진실로 믿는 신자라면 윤리적 행위를 통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회에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맞아 낡은 윤리가 우리를 아직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니 유엔처럼 세계화 시대에 맞는 보편 타당하고 현대화된 윤리기준을 제정해야 할 때이다. 가장 먼저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자' 라는 윤리의 황금률부터 지켜보자. 이것만 지켜도 세상은 엄청 좋아진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고 쓰여져 있다. 직업상 부자를 많이 상대하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옳은 방법으로 돈 벌기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부자는 정말 지독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다. 부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보통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부자는 머리가 좋고 판단력도 좋으며 노력형이고 냉정하고 집념이 강한데 알고 보면 이런 점은 모두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가 많다는 점이다.

부자를 나쁘게 보자면 한이 없지만 불교는 부자라고 나쁘게 보고 가난하다고 좋게 보지는 않는다. 나는 부자의 부정적 측면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 있기에 저렇게 될 수 있지만 부자는 머리가 좋고 판단력도 좋으며 노력형이고 냉정하고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행운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탐욕에 빠져 있지만 부자는 능력, 노력, 행운이 있다보니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불교는 부자라고 나쁘게 보고 가난하다고 좋게 보지 않는 종교다. 부자도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쁘고 좋은 행위를 하면 좋으며 가난한 사람도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쁘고 좋은 행위를 하면 좋다.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급기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시위대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부자가 된 뒤에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언가 다른 부자가 된다면 몰라도 자기가 비판했던 부자와 똑 같은 사람이 된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돈이 많다고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돈 그자체가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하셨다. 돈이 많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 복 받은 거다. 재물이 나쁜게 아니라 재물을 나쁘게 쓰면 나쁘고 좋게 쓰면 좋다. 나쁘게 벌면 나쁘고 좋게 벌면 좋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돈 그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마음과 행위가 문제다.

성경의 구절은 부자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부자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다. 부자가 된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구절이 경전에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만약 나쁜 짓을 하는 어떤 부자가 나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부자가 된 것이야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자가 되려면 능력, 노력, 행운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 나쁜 짓을 하는 부자도 분명 능력, 노력, 행운에 의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능력과 노력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물론 능력과 노력이 있어도 행운이 없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능력과 노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능력, 노력, 행운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한국에서 태어난 것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난 뒤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쌓았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나쁜 짓을 하는 부자는 능력, 노력, 행운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는 나쁜 짓 때문에 앞으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나쁜 짓으로 인해 그는 업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사회가 혼탁하고 법과 윤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해도 돈을 번다.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 는 이건희 회장의 말을 상기해보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 법과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쁜 짓을 하면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사회가 혼탁하고 법과 윤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나쁜 공업이 쌓인 사회다. 따라서 불자에겐 선택이 있다. 바르게 돈을 벌 것인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이다. 불자는 어떤 경우에도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약 나쁜 짓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렇게 번 돈을 앞으로는 좋은 일에 쓰면 된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18년 상반기 신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접수 공고

01 신청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02 지원금액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03 지원신청 및 심사

■ **신청기간** :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지원신청서**(종단양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 ①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②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③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신청하여 팩스로 받음)

■ **접 수 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 정

중생을 위한 지장보살의 배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⑮ 지장십륜경2

부처님의 소개를 받으며 지장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찬탄공양하며 등장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호의문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이 뭐하는 분입니까? 그가 사는 불국토는 얼마나 부자 길래 저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지요? 저는 그동안 부처님께서 이처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지은 공덕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보기엔 그냥 신통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배장식 옷을 입히고 여의주를 주는 퍼포먼스를 벌린 것 같은데 부처님이 엄청 칭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호의문에게 말씀하신다.

"호의문, 그만두어라. 그런 마음으로는 지장대사의 공덕과 선근을 이해 못한다. 설혹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평소에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더니 오늘은 호의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호의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비심으로 간절히 설명해주시길 원하자 지장보살에 대해 말씀하셨다.

"다들 자세히 듣고 명심하라. 이 보살은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수승한 공덕을 성취했다. 이미 수능가마의 뛰어난 삼매에 머물며 능히 여래의 경계에 훌륭하게 깨쳐 들어가 무생법인을 얻은 분이다. 그가 머무는 국토도 온갖 삼매에 따라 한량없는 수승한 공덕을 일으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킨다. 그렇게 하여 선정에 들면 모든 이들도 다함께 이 선정의 힘으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공양하며 행복을 성취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국토에 머무름을 따라 발원하는 바를 가지고 선정에 들면 이 힘으로 일체 유정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게 해준다.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좋은 환경과 복덕과 명예와 부귀와 안락을 가져다주고 있다. 심지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보살을 생각만 하여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까지 한다. 온갖 병고와 재난과 전쟁의 고통에서도 지장을 부르고 귀의하며 모두 열반으로 가는 길에 데려다 준다. 지장보살은 그 어떤 보살보다도 상상이상으로 뛰어나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대비와 용맹정진으로 이룬 결과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지장보살에게 예배공양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대중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양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에 올렸다. 지장보살은 이 모든 공양구를 다시 부처님 앞에 올리며 서원을 세운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앞으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들을 제도하여 저들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증장시키고, 수행할 수명을 증장시키고, 건강을 증장시키고, 기력을 증장시키고, 명예를 증장시키고, 좋은 친구와 제자와 청정한 삶을 증장시키고, 생활환경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의식주를 다 증장시켜서 무엇이 부족하여 정진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 대승의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다 고통의 지옥을 벗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제 원력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구족수화길상광명대기명주총지장구(具足水火吉祥光明大記明呪摠持章句)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성불을 미루고 중생을 위해 몸 바친 일은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며 시킨 일이 있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항상 지혜가 용맹하고 번뇌가 사라지게 되도록 모든 희망이 증장되고 다시는 고통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언, 바로 '츰부다라니'를 나지막히 독송해보자.

〈서울 반야사 주지〉

누구나 시시각각 소원을 성취한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⑭ 금강경 16분의 응용

성공하고 싶은 어떤 사업가가 있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이었던 그는 자신의 기도와 노력만으로 도저히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부처님의 비밀한 기도의 힘이 있다면 이 힘을 빌려 성공하고자 했다.

그는 미래를 잘 안다는 소문난 선지식을 찾아가 "제 실력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힘을 빌려 성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께 기도하여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선지식은 말했다.

"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면, 사업이 어렵지 않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자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또 부처님에 대한 기도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사업 성취를 진정으로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다니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선지식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없는 돈을 끌어 대었고 사업성취를 위하여 하루에 1000배 이상을 100일도 더하였으며, 경영의 달인을 찾아다니며 경영비법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금이 모자라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말이 되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사업이 안된다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아니 됩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의 잠재의식은 성공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요. 사업성공을 원한다는 현재의 마음을 잠재의식이 곧이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정으로 사업의 성공을 원할 때 사업은 순식간에 성공할 것이요"

성공의 참 원인은 무엇인가? 또 실패의 참 원인은 무엇인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업가가 현재의식(제6식)을 잠재의식(제7식, 말리식)에 일치시키지 못하고 갈등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성공을 바라면 내리막길의 사업이 성공하고, 잠재의식이 원하지 않으면 잘 나가던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실패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다.

잠재의식이란 바로 전생에 지은 업(業, 8식)에 의하여 형성된 마음이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현재의식보다는 잠재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쉽게 따르는 것일까? 숙세(宿世 전생)에 닦은 정도 즉 아상의 소멸 정도에 따라 다르다. 아상을 소멸한 사람의 잠재의식은 바로 현재의식의 말을 따르고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한다.

"부차수보리(復次須菩提), 선남자선여인(善男子善女人)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

이 경을 수지독송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하면 -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하는 마음은 곧 현재의식을,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하는 것은 현재의 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식이 분명히 금강경을 독송함에도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잠재의식은 금강경을 독송하지 않고 '나는 무거운 죄를 지었소. 나는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큰 죄를 지었단 말이요' 하고 중얼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현실에 나타나는 각종 재앙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 결국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독송하는 금강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곧이 듣게 되며 죄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성공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밝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居) 시인생(是人生)

생종하처래 (生從何處來)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부운자체본부실(浮雲自體本無實) 생사거래역여연 生死去來亦如然)

독유일물상독로(獨有一物常獨露) 담연불수어생사(湛然不隨於生死) 환회득담연저(還會得湛然這) 일물마(一物)라 했다.

이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은 한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그 뜬 구름이 사라지는 것안데, 뜬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요, 오가는 생사 역시 이와 같은 것이나, 그중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맑고 고요해 생사를 따르지 않도다"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한 물건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뭣고' 수행인 것이다.

일종위배본심왕(一從違背本心王) 기입삼도역사생(機入三道歷四生) 금일척제번뇌렴(今日洗滌煩惱染) 수연의구자환향(隨緣依舊自還鄕)는 말을 한번 음미해 보자.

우리의 불성인 본심왕을 한 생각 무명으로 인해 등진뒤로 얼마나 많이 사생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가 체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돌고 있는가? 금생에 그 번뇌 망상의 때를 '이 뭣고'로 깨끗이 씻어 내면, 생사가 없는 본래의 고향인 자성불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악생어심환자괴형(惡生於心還自壞形) 여철생구반식기신(如鐵生垢反食其身)

"금생에 그 번뇌 망상의 때를 '이 뭣고'로 깨끗이 씻어 내면 생사가 없는 본래 고향인 자성불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본래 청정한 마음에 악이 생겨 도리어 제 몸 부수는 것이, 마치 쇠에서 녹이 생겨나 도리어 제 몸을 파고 들어 먹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고, 여사자신중충(如獅子身中蟲) 자식사자육(自食獅子肉)이라, 즉 광야의 무적(無敵) 사자도 싸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생긴 기생충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생겁래로 번뇌의 먹구름이 우리의 반야지혜 광명을 감싸놓고 내안의 자성불을 녹슬어 가게 하니, 이것을 제거 하는 것보다 무엇이 시급한 일대사(一大事)이겠는가?

그래서 '이 뭣고' 이 그 만큼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다.

〈법화경 신해품〉을 보면 어리석어 밖으로 나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장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이렇게 밖으로만 찾아 해매는 중생의 무지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 마왕인 파순이의 아들에게 육문성(안이비설신의)을 내주고 객인 마구니가 안방에 자리잡고 주인 행세하며 본래 심왕인 참나는 뒤 골방으로 쫓겨나 수천생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우리 불자들도 경계에 끄달려 밖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이 뭣고'로 공적영지(空寂靈智)한 본래 참성품으로 귀환시켜 꼭 육도 생사 굴레서 벗어나는 것만이 금생에 우리가 이루어야할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한생각 일어나고 한생각 사라지는 것이 생사라 한다. 즉 길게는 호흡지간에 있고, 또한 한생각(찰나, 75분의 1초)서 생멸한다. 욕심은 에너지를 밖으로 나오게 해 소모시키니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채우려 밖의 살림살이에 매달려 평생을 보낸다. 이 마음 작용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며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변화 무쌍하다.

마음을 거두어 본공으로 돌아가면 생사가 이것이요, 이것이 생사가 없는 소식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기침,트림,하품,진동,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하품, 빛의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빙의,영가장애,무속병 원인없는 질병,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사업,이혼,사별,별거,자식,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상단전 (지성) + 중단전 (감성) = 도통수행법
❽ 상단전 (지성) + 중단전 (감성) + 영성 (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자은사
• 주 소 : 충남 공주 반포면 마암리 산 35-4
• 법 명 : 이용훈 (자운)
• 등록번호 : 제 2013-1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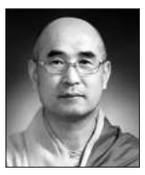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법하

천태종 총무원 및 주지 인사 단행

총무부장 월장 · 재무부장 월중 스님


월장 스님


월중 스님


도웅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이 새 집행부 인선에 발맞춰 총무원과 일부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4월 18일자로 총무원 총무부장에 월장 스님(제16대 전형위원회 위원 겸직), 재무부장에 월중 스님, 사회부장에 도웅 스님(상벌위원회 위원 겸직), 규정부장에 갈수 스님(상벌위원회 위원 겸직)을 임명했다. 교무부장 경혜 스님과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유임. 이밖에도 교무부 기도실 담당 도각 스님, 종정 사서실 과장 견문 스님, 총무부 총무국 과장 묘언 스님, 종정 사서실 서기 연담 스님, 교무부 교무국 서기 선벽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말사 주지 및 학교법인 인사도 단행됐다. 서울 삼룡사 주지는 前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산 광명사 주지는 개문 스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은 장호 스님(금강대 국제선원장 겸직), 서울 관문사 주지는 월장 스님, 창원 원흥사 주지는 갈지 스님이 맡았다. 학교법인 사무처 국장은 구화 스님이다.

김주일 기자

대전불교총연합회장에 무원 스님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사진〉이 새로 창립된 대전불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무원 스님은 4월 15일 광수사에서 열린 '대전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와 함께 상임대표에 대연 스님(송림사 주지) · 석준 스님(여경암 주지) · 원명 정사(진각종 교구청장), 사무총장에 설문 스님, 재무총장에 승원 정사(총지종 만보사 주교)가 선임됐다.

한편 대전불교총연합회는 대전불교 출가자와 재가자가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다. 대승보살도 수행으로 육바라밀, 자비희사, 동체대비를 펼쳐 불국정토 실현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호섭 기자

양흥식 디지털대학 처장에 임명



조계종 신임 디지털대학 교학처장에 양흥식 前업무국장〈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양 신임 교학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양 교학처장은 1992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불교TV에 재직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금강신문 미디어팀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3월부터 조계종 디지털대학 업무국장을 맡아 디지털대학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노덕현 기자

"영어와 명상으로 어린이 포교를"

Interview

영어동작명상 강좌 여는 자우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2일부터 매주 토 개최
뉴욕대 이선옥 박사가 진행
"명상 · 진로상담, 포교 성공적"

불교 안팎으로 명상열풍이 불며 불교 명상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영어와 명상을 활용한 새로운 포교를 진행하는 사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화제의 대상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선원장 자우)은 5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경내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어로 배우는 동작명상 강좌'를 연다. 강사로는 미국 뉴욕대에서 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선무용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 온 이선옥 박사가 참여한다. 이번 동작명상 강좌는 평소 영어를 활용한 어린이 포교를 해온 선원장 자우 스님의 관심이 있어 이뤄질 수 있었다.

자우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 도량으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 현대사회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학업 압박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소통과 보살핌의 부재, 집중력 결핍 등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심리적 · 신체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보니 선무 창안자인 이선옥 박사와 함께 '영어로 배우는 동작명상'을 진행하게 됐다. 영어로 명상을 실제적으로 배우며 자연스럽게 영어실력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명상을 지도하는 이선옥 박사는 해외포교 선구자였던 숭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선정에 다가갈 수 있는 선무를 창안했다.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파리 르 몽 포엥 극장에서 '선무가 바라밀다' 공연을 시작으로 100회 이상 활발한 공연을 펼쳤다. 뉴욕대 무용교육과 겸임부교수, 원광대 예술치료학과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강좌에서 소개될 동작명상은 이 선무에 기반을 두고 부처님 수인(手印), 음악과 춤, 몸의 움직임과 단전 등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시킴으로써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명상법이다.

자우 스님은 "어린이들의 경우 집중력 부족으로 일반적인 명상을 오랜 시간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다양한 동작 속에서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명상이 맞춤형 명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선을 알려온 이 교수가 진로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우 스님은 이어 "영어 암송대회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력과 별개로 그 경험이 상당한 자신감으로 자리해 향후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영어로 불교수행을 하는 것에 높은 호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불교계가 영어를 통한 어린이 포교에 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포교 전망을 밝혔다.

한편,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성인 교실 또한 동시 개강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작 명상은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다. (02)6012-1731

"전법 · 봉사하는 동문회 만들겠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회장 법경 스님 취임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 혜정 스님(사진 왼쪽)이 13대 회장 법경 스님에게 회장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3대 회장에 법경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4월 17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제12 · 13대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동림동문회 전임회장 혜정 스님,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조계종 前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림동문회 제13대 회장 법경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법경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시행해 동문회가 적극적인 전법활동에 나설 것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반 재가자 장학 후원을 추진하고 함께 경전 공부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실 있고 알찬 총동림동문회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많은 회원 스님들이 함께 일심 정진해 화합의 동문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동국대는 불교를 대표하는 종립사학으로 수많은 불교인재를 배출했다"면서 "동국대의 불교인재인 동림동문회 회원들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학업에 어려움 없길"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증서 수여식



(사)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4월 13일 서울 길상사에서 제25회 '맑고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35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예산은 9000만원. 학비는 분기별로 학교계좌로 송금하며,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는 운영회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윤호섭 기자

적조사, 지역사회 자비나눔

봉축 앞서 라면 · 쌀 등 물품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적조사(주지 탄국)는 부처님오신 날과 가정의달 5월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물품 전달식을 4월 13일 개최했다. 적조사는 라면 200박스, 초코파이 250박스, 쌀 70포대(10kg), 음료수 1200개 등을 포교단체와 대안학교, 어린이공부방 등에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4 · 19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학생 · 교직원 등 2,00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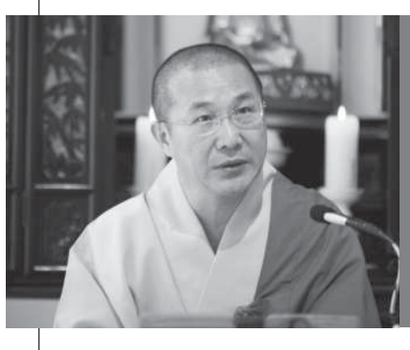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보광)는 '4 · 19혁명 제58주년'을 기념해 4월 13일 북한산에서 '제49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등산대회에는 교직원 및 학생, 동문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 4 · 19민주묘지 내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갖고, 동국대 재학 중 4 · 19혁명으로 희생된 16명에게 헌화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와 단체별로 교수 및 학생들이 북한산 대동문까지 함께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제 6기 개강

원순스님의 〈능엄경楞嚴經〉

경전어록 전문 강설 도량인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오는 5월 14일 〈능엄경〉 강설을 위한 법회를 1년 과정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능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며 다른 경전에 비해 난해하다는 인식으로 재가 불자들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5월 개강을 시작으로 가을 학기에 이어서까지 능엄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경전 어록에 관심 있는 분들과 특히 능엄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상임지도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개강일시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묘광선원 -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수 강 료 월 5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051.244.0263 / 010.3564.3725 / www.open-buddhism.com

※ 주차는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유료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계·정·혜 삼학 닦으며 군생활을…”

태고종 전북종무원, 35사단 군장병 위문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 호국 충경사를 방문해 특별위문법회를 봉행했다.

4월 15일 35사단 호국 충경사(법사 덕명) 법당에서 열린 이날 특별 위문법회는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탑 밴드, 진안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불자장병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장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법어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고된 훈련에 지친 장병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분위기 무르익어 가는 요즘과 같은 시기일수록 계정혜 삼학을 지켜 건강하고 지혜로운 군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문법회에는 리티댄스 팀, 가수 한유빈, 마이산 탑 밴드, 아이돌 댄스팀 리멤버 등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이며 고된 훈련으로 지친 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 ‘떡볶이 스님’으로 알려진 송운 스님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최미자 사무국장 등 봉사단은 장병들에게 매콤한 떡볶이와 진안홍삼찐빵, 커피, 음료와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수원 출신 김동규 훈련병은 “고된 훈련을 마치는 신병훈련소에서의 마지막 휴일에 그동안 고된 훈련의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 주는 위문법회였다”며 “군생활은 이제 시작이지만 다치지 않고 더 멋진 아들로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5월 18일에도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에서 봉축위문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군장병 포교와 봉축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해운정사, 아라한 육법공양대재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도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15일 경내서 오백나한 봉안 2주년 육법공양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대재에는 천불사 정우 스님과 200여명의 대중이 동참했으며, 의식집전은 비로암 월오 스님, 마하사 혜오 스님이 맡았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위인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며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라는 행복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아라한에게 ‘오직 바라옵건데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라며 육법공양을 올렸다.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영산합창단의 음성공과 불교무용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해운정사는 이에 앞서 13일 송현역 농협 3층에서 ‘청명실버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및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창원 천불사 정우 스님과 (선)승가회 회원 스님 및 일심비구니회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출가 후 평소 어르신들을 평생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을 화두로 삼아 수행정진 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 순례로 배우는 불교문화 정수

(사)미소원,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사찰순례 전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해남 대흥사에는 왜 사천왕이 없을까? 사찰이 좋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와 문화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불교문화를 쉽게 풀어 부처님 법을 전하는 현장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미소원이 진행하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사찰순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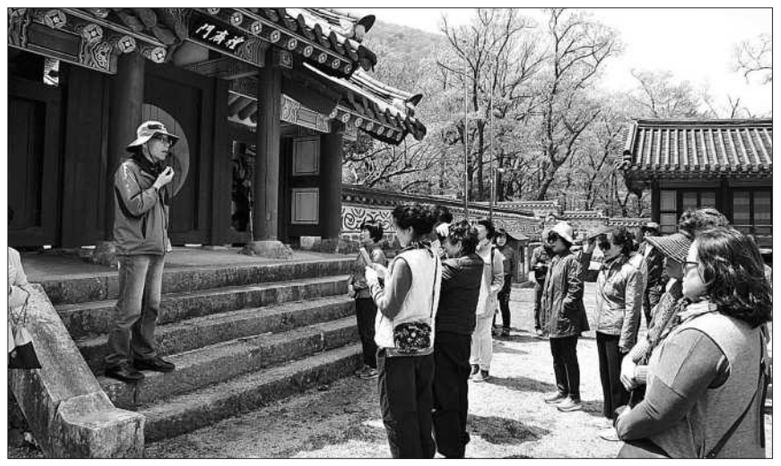
사단법인 미소원(원장 장유정 · 이하 미소원)은 4월 15일 ‘불교미술 전문해설가 김춘식 교수와 함께하는 조계종 25교구본사 사찰순례’를 실시했다. 미소원은 부산에서 20여 년간 사찰순례를 진행해 불교문화로 포교에 앞장서 왔으며,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불교 기행으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매번 순례마다 접수 시작 후 10분 만에 참가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6월부터는 새로운 기획으로 한 달에 한 번 조계종 25교구본사를 탐방하는 순례를 시작했다. 10회째를 맞아 방문한 순례지는 22교구본사인 해남 대흥사.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실은 미소원 회원들은 일제히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 후 〈금강경〉을 펼쳤다. 〈금강경〉 독송과 기도로 출발을 알린 회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순례가 되기를 발원했다. 해남사에 도착한 미소원 회원들은 김춘식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김춘식 교수는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문화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문화 전문해설가다. 20년 전부터 미소원과 인연이 되어 불교문화를 설명하고 문화재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김 교수는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의 의미부터 전각과 설화, 서산대사와 초의 선사 등 대흥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이어온 사찰 순례
불교 문화재 설명은 곧 전법
비불자가 만나는 부처님 세상
“행복한 불국토 세상으로 안내”

“대흥사에는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한 곳으로 호국성지입니다. 서산대사의 의발이 보관된 후 초의 스님을 비롯해 대선사가 탄생한 가람이지요. 대흥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조대왕, 원교 이광사, 추사 김정희 등 당대 최고 명필이 적은 현판입니다.”

그는 이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곳이란 무염지(無染池) 연못은 한자 마음 심(心)자 모양이다. 화기를 누르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데, 대흥사 곳곳이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해 둔 불국정토”라고 강조했다.



대흥사를 방문한 미소원 회원들이 김춘식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 교수는 대흥사 천불사 부처님과 가사에 담긴 설화, 서산대사 사당인 표충사, 부도탑 등 전각 곳곳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소원 회원들은 대흥사에 이어 말사인 은적사를 방문하고 순례를 마무리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미소원 순례가 특별한 이유는 김춘식 교수님의 전문 설명이 한몫을 한다”며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기도 하지만 사찰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전법의 장소가 된다”고 말했다.

답사 참가자들 가운데는 회원 뿐 아니라 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송미정(50 · 부산 명륜동) 씨는 “불교를 좋아하지만 자주 사찰에 가거나 공부를 하지는 못한다”며 “오늘 처음 왔는데 대흥사에 도착한 그 순간 힐링이 되고 마음이 열린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이 새로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류도겸(58 · 부산 구서동) 씨는 “나를 미소원에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지만 가족 대부분이 가톨릭신자다. 그럼에도 가족 덕분에 몇 해 전 사찰 순례에서 김춘식 교수님 설명을 듣고 불교문화포교사 과정을 밟기도 했다”며 “오늘 가족 추천으로 처음 방문했는데 불교 언어와 상징 세계를 알게 돼 불교를 보는 깊이가 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소원은 오는 5월 13일 동화사와 은해사 거조암으로 교구본사 순례를 떠난다. 장유정 이사장은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며 “사찰 순례를 통한 행복한 불국토 여행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646-9074

선운사 전법도량 고창불교회관 ‘첫 삽’

고창 뉴타운 12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왼쪽 네번째) 등 내빈이 고창불교회관 기공식에서 시삽하는 모습.

고창 선운사가 어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포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법도량 고창불교회관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14일 고창군 월곡지구 뉴타운 고창불교회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선운사 前주지 법현 스님, 범여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장, 선운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고창불교회관은 어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포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 위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내부시설로는 법당을 비롯해 체육시설, 다목적실, 지도자실, 청소년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관, 강의실, 북카페, 다문화 가족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이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종합노인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고창종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유아에서 노인,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종합 포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고창불교회관은 고창뿐만 아니라 전북 서남부 지역의 포교도량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포교와 사업을 선도하고 불교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소통하며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포교를 활성화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 날 정호대종사 70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하고 악한 것을 자세히 살피고 두려운 일과 꺼려야 할 일을 마음으로 알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행복하여 걱정이 없어지리.

– 법구경 –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경상도가 고향인 참신한 30대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경남 함안군)
010-6893-5040

조용한 암자입니다. 절에서 살고 싶은 보살님이나 수행처를 찾는 비구니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충청도)
010-7423-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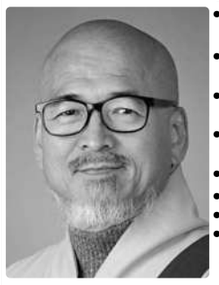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스님이 필요한 절을 찾습니다. 무보시로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60대 비구)
010-4882-383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투자자 초빙

약 5천평내에 불교식 석조물을 조성코저 하오니 투자 하실 분 2인을 초빙
투자금은 기존 부동산을 설정해 드림
투자금액은 1인 2억(상세한내용 전화 문의)
010-2873-3446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수륙대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영남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화청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찰화재 보험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10-7344-1881
010-4510-366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 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 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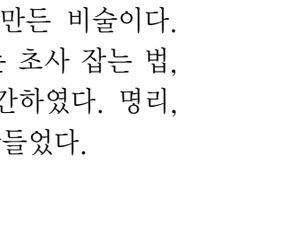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죽순 콩단백 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온화한 마음은 성냄을 이기고, 착한 일은 악을 이기고, 베푸는 일은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법구경 –



안성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 1채. 법당 건물 1채. 토지 1.000㎡
- 주변이 산, 주차장 보유. 사찰 이용하던 건물.시내 근접함.
- 양도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서울사찰(급)안내
- 뒷편 산사찰
- 토지 120㎡. 이층법당. 1층 요사채
- 전망좋은기도사찰. 산책로입구
- 깨끗하고 30년된사찰
- 양도 : 5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8709-5813
02)941-4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70평,부지 400평 ◎ 부지 : 100평 사용
◎ 합 470평 ◎ 인법당 : 약 60평
◎ 산및바다조망 ◎ 산속, 무허가건물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전철역 5분거리
- 3층 건물 80평 중
- 법당 40평, 공양간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세금 60만원 시설비 : 5천만원
- 법당 전체 단청 공양간
- 시설완벽(몸만 오시면 됨)

010-8500-00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다용도방, 창고1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0474
010-7475-047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 동불:약왕보살님 높이 75㎝
- 동불:지장보살님 높이 70㎝ 관세음보살님 높이 90㎝
- 후불탱화 높이 120 넓이 240㎝
- 신중탱화 높이 130 넓이 121㎝
- 산신탱화 높이 130 넓이 130㎝
- 용왕탱화 높이 120 넓이 120㎝

010-6321-1242

사찰(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8백만원

010-8525-1959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안심뉴타운지역
- 4년째 운영중인 포교원
- 4층 70평과 옥상사용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9805-0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 (법당), 4층 (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속의 계곡과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에 대지 328평 1층 60평 중 30평은 명상홀 다음 30평은
- 요사채 2층 법당 25평 삼성각 4.5평
-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농지에는 사과나무와 호두나무
- 석물 수월관음, 연화탑, 원통문 포대화상 ●가액 : 6억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하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 종교부지 300평포함 700평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 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3659-7071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150년된 암자 3,000평
- 인법당, 요사채, 산신각
-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
- 가액 : 6억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동)
- 가액 : 3억

010-2591-4736

양평 불교 동호인 마을분양
- 위치 : 양평
- 평수 : 396㎡(120평)
- 불교공부와 참선 정진하고 싶으신 분
- 제일 저렴한 땅
- 선착순 : 8명
- 양도가 : 3,700만원

010-2215-3657
(주인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연지암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80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 – 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다목적 건물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 창수령
- 대지 : 1,507㎡
- 건물 : 180㎡
- 국유림 아래
- 가액 : 9,500만원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역 5분
- 대지 : 2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몽땅 1억 1천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 격 : ~~10만원~~ ▶ 90,000원
주 문 : 02)2004-8216
입 금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연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동물 도살 그만!" 美 불교단체는 방생 열풍



경매에 오른 염소들. 사진출처=gofundme



동물 방생에 관한 기도문을 읽고 있는 링 툴 린포체.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방생된 염소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서양불교 단체들이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막기 위해 '방생(放生)'을 토대로 나섰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4월 9일 사육·도살되는 동물들이 불교 단체들에 의해 자유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링툴 린포체(Lingtrul Rinpoche)는 3만4000달러(한화 약 3600만원)를 모금해 318마리의 염소를 살렸다. 그리고 이때 방생캠페인을 주최한 이시스 하오는 올해 다시 염소들을 살리기 위해 모금에 착수했다. 최대한 많은 염소를 구하겠다는 목표다.

링툴 린포체는 모금액으로 노던 캘리포니아서 진행되는 라이브경매를 통해 도살될 위기의 염소들을 샀다. 티베트 불교 닝마 종단의 현 종정인 카톡 게체 린포체(Kathok Getse Rinpoche)는 이 모금행사에 엄청난 액수에 돈을 기부키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에 있는 닝마 종단 센터인 오갠 도르제 덴(Orgyen Dorje Den)은 경매로 새 보금자리를 찾은 318마리의 염소의 운반을 도왔다.

이렇게 구매, 운반된 염소는 '고츠 아러스(Goats R Us)'로 간다. 이는 부부인 테리 오이알순과 에곤 오이알순의 사업체로 방생 단체이자 동물 보호소로 볼 수 있다. 하오는 "고츠아러스는 갈 곳을 잃은 모든 동물들을 데려와 치료해주고 돌봐준다.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남은 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방생해주는 단체다"고 평가했다.

오이알순 부부는 최근 1만 마리가 넘는 염소떼와 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형 산불에 의해 초목이 불타 고립된 염소들을 구조해 온 것이 크다. 실제로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9천회 이상의 산불이 있었으며, 138만 에이커(약 17억 평)가 불탔다. 이때 수많은 동물들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도살 위기 동물 구출에 불교 단체들 적극 나서 생태계 교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생 진행

방생은 불교서 내려오는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등 살아있는 것들을 사서, 자연에 놓아주어 살려 주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래서 이 불교단체들은 새로운 방생법을 고안했고, 동물들을 직접 품어주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생을 하지 않으면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4월 미국 노스빌과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불교 명상센터'는 송아지 고기가 될 뻔한 4마리의 어린 송아지들을 구출해 방생했다. 명상센터를 보조하는 한 커플이 우유와 계란을 사기 위해 한 농장을 방문했다. 커플은 농장에 걸려있는 송아지 고기 광고에 대해 물어보았다. 농장주는 "젖소라면 우유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운다. 하지만 숫송아지는 도축한다"고 마침 곧 네 마리의 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아지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커플은 명상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기꺼이 5천 달러의 돈을 지불해 송아지의 생명을 구했다. 곧 송아지들은 펜실베니아의 '인드라로카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센터에 상주하는 콧타와 난다(Kottawa Nanda)스님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제품들을 절약하는 것만 해도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며 방생과 생명존중이 불교수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인드라로카 동물 보호소의 운영자 인드라 라히리는 "보통 구조한 단체가 우리 보호소로 연락이 오지만, 이번은 농장주가 직접 연락을 줬다. 농장주가 생명보호라는 불교의 사상에 기꺼이 찬성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라히리는 미래에 도축되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대량 남획되는 해양 생물들에 대한 보호도 계획 중이다.

일례로 노바 스코티아에 있는 캄포 비구니 승원(Gampo Abbey)는 매년 바닷가재 시즌에 포획되는 가재들을 구매, 걸프만으로 옮겨 바다에 방생하고 있다. 바닷가재들이 다시 포획됨을 막고 동시에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 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방생은 불교의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수행임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점점 서구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 새 명소 탄생… '로쿠야 대불' 완공

12m로 일본서 2번째 대불
이름 뜻은 '녹야원'서 유래
40년 전 스승님 원력 이어
현 주지 스님이 대불 회향



'스푸트니크 재팬'은 4월 11일 일본의 수도 도쿄 교외에 높이 12m의 대불<사진>이 완공됐다고 보도했다.

도쿄도 교외의 히노데쵸(日の出町)의 사원 호코지에 세워진 12m의 대불은 대좌를 포함하면 18m의 높이, 5년간에 걸쳐 총공비 4억엔에 조성됐다. 이 대불은 가마쿠라 대불(11.3m)을 제치고 나라의 토다이지 대불(14.98m)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불이 됐다.

대불의 조성은 호코지의 선대 주지스님이 포교 원력을 세워 40여 년 전에 발안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 현 주지인 야사카 료쥬(八坂良秀, 64)스님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다. 료쥬 스님은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함께 수행하던 도반을 여럿 잃고 말았다. 그들과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건립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불상은 청동제로 2013년 야마가타시(山形市)의 주조공장에서 각 부분별로 주조했다. 2017년 가을 모든 부분을 절에 가져와서 조립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대불의 이름은 로쿠야대불(鹿野大佛)로 호코지 측에선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굴리신 녹야원에서 이름을 따왔다. 마침 대불이 세워진 언덕의 이름도 로쿠야가오카(鹿野ヶ丘)"라고 전했다.

모든 공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산 위의 대불을 보고 참배 문의가 끊이지 않아, 4월 11일 대중 공개를 결정하였다. 공개당일은 오전부터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아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옆 도시에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 참배객은 "산뿐인 이 지역에 갑자기 이런 명소가 생겼다. 경치도 좋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에 감동했다"고 감상을 밝혔다.

지자체 측에서도 이 대불이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료쥬 스님은 "이 대불을 참배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편안함을 얻기를, 또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이 마을이 평화롭기를 기원한다"며 대불이 완공된 의미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석가모니 진신사리 대중에 최초 공개

220년 만…콜카타 인도 박물관서

치아사리와 수정 사리구를 보유했으나 이를 공개치 않았던 인도박물관이 불교미술전시관을 확장하고 진신사리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화제다.

인도 신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4월 9일 콜카타의 인도 박물관(The Indian Museum)이 비공개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사리구를 대중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리는 함께 발굴된 석조사리함의 명문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로 확인된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 최근 고고학적 연구에서 핍프라와 불탑이 부처님의 입적 후 최초로 세워진 근본8탑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해외 관람객들이 사리를 소장했다는 이유로 인도 박물관을 방문하지만 공개한 바 없어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런데 이젠 발길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인도 박물관이 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불교미술전시관 확충과 동시에 진신사리를 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정사리구. 출처=인도 박물관

박물관은 1898년 영국인 고고학자 윌리엄 펩페가 핍프라와(Piprahwa) 불탑 유적에서 발굴한 두 과의 치아사리와 수정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한 번도 대중 공개를 한 적은 없었다. 또 아쇼카 대왕의 치세였던 3세기와 불교미술이 꽃을 피웠던 굽타시대의 불교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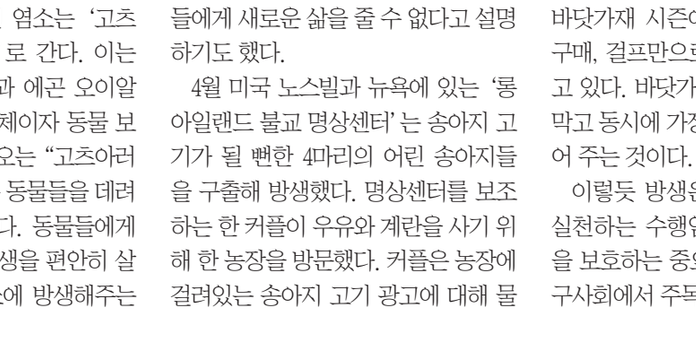
라제쉬 푸로힛(Rajesh Purohit) 박물관장은 "소장중인 모든 유물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람객들에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둘러볼 수 있는 동선을 짜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불교유물 중에선 가장 귀한 진신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새롭게 확충될 전시관은 부처님의 일생을 360도로 둘러 볼 수 있는 형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시될 유물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고대 조각들과 불탑의 부조들인 것으로 전했다. 또 근현대 인도 예술가들이 그린 불교설화에 관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푸로힛 박물관장은 "이곳 콜카타는 오래전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 여행을 시작하는 관문이었다. 특히 태국, 미얀마, 일본 등 불교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오는 불교신자들도 이곳을 인도순례의 시작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순례의 시작을 사리친견으로 시작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리공개의 배경에는 네팔과 오랫동안 논쟁중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의 인도소재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투는 현재 인도의 핍프라와 유적과 네팔의 틸라우라코트 유적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일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설립 안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그동안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는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국내·해외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2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with ASIA 이사장 ·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 원 합장
후원동참 방법 : 현금후원(일시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 토지 및 부동산 후원 등
후원동참 안내 : 부산은행 101-2054-2067-00 국민은행 125001-04-109908
농 협 351-1001-9652-33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후원해 주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사무국 | 051)624-1244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고 작용 끊는 수행은 깨달음 없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2. 자비선 명상

3) 무심공부

마음의 본성은 무조작의 본연 그대로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다. 그래서 ① '불사선 불사악' 이라고 했으며 ② '다만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 고 했다. ③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시중(示衆)의 내용 가운데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생사의 뿌리가 되니, 다만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곧 생사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니라"라고 모두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본연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도(道)를 닦는 것이다. 이 한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바로 무심공부다. 이 망념을 없애는데 회양선사는 8년이 걸렸다. 그런데 마조선사의 시중의 내용이 수행자와 문답을 통해 바로 망념을 없애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조사의 언구(言句)가 바로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살(殺)이 있고, 망념이 제거되고 진심(眞心)이 현현하여 작용하는 활(活)이 있다. 따라서 선사와 수행자의 선문답 속에서 선사의 언구에 주의해야한다. 선사의 언구에도 제1구, 제2구, 제3구의 경계가 있다. 제1구에서 깨치면 조사선(祖師禪)이고 제2구에서 깨치면 여래선(如來禪)이며 제3구는 의리선(義理禪)이라고 한다.

조사의 제1구는 활인검(活人劍)이며 제2구는 살인도(殺人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1구의 조사선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임제선사가 설하는 마음의 본성인 심청정(佛), 심광명(法), 걸림 없는 청정한 빛(道-無碍淨光)을 제1구에서 깨달으면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망념이 전혀 없어 무념이다.

제2구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여래선이다. 이 제2구에서 깨달으면 물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제3구는 본분진여(本分眞如)를 문자로 이해하는 건립문자(建立文字)의 의리선이다. 이 제3구에서 깨달으면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선사는 수행자의 수행 경계를 따라서 코칭하는 선사의 언구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임제선사의 사료간(四料揀)이다. 임제선사는 수행자를 코칭하는 방편으로 사료간을 제시한다. 사료간이란 네 가지를 헤아려 가려낸다는 뜻이다.

①탈인불탈경(奪人不奪境):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것은 제3구에 해당 것으로 아직 언어문자에 메어있는 수행자에게 쓰는 방법이다.

②탈경불탈인(奪境不奪人):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은 제2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어문자를 떠난 수행자에게 쓰는 방법이다.

③인경구탈(人境俱奪):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은 것은 역시 제2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립문자의 경계에서 마음의 본성인 진여에 들어가게 하는 단계로 수행자에게 쓰는 방법이다.

④인경구불탈(人境俱不奪):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지 않는 것은 제1구에 해당하는 경계로서 출격(出格)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계에 와 있는 수행자에게 쓰는 방법이다.

사료간의 사람과 경계에 대하여 임제선사(臨濟禪師)의 스승인 황벽희운(黃蘗希運) 선사는 〈전심법요〉에서 "범부(凡夫)는 경(境)을 취(取)하고 도인(道人)은 심(心)을 취한다. 심경쌍망(心境雙忘)이 곧 진법(眞法)이다. 경(境)을 망(忘)하는 일은 오히려 쉬우나 심(心)을 망(忘)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至難]"고 한다. 보조국사는 이 사료간을 민심존경(泯心存境)-민경존심(泯境存心)-민심민경(泯心泯境)-존심존경(存心存境)으로 표현하고 깨쳐가는 수행단계로 진심직설(眞心直說)에서 제시하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 달마가 혜가에게 던진 질문의 언구, 육조(六祖)가 회양에게 던진 질문의 언구, 그리고 이름 있는 조사스님들의 언구가 송대(宋代)에 오면서 형식화, 유형화,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 조사의 언구를 공식화한 것을 공안(公案)이라고 하고, 이 공안의 핵심을 화두(話頭)라고 하며, 이를 참(參)하면 깨닫는다. 그래서 조사의 공안이 깨침의 열쇠가 되는데 1,700가지나 된다. 이 조사(祖師)의 언구를 참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화두참구법이다.

물론 무심(無心)공부는 반드시 화두를 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화두참구법인 간화선은 대혜선사 이전에는 없었던 수행방법이다.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드는 것을 비판했지만 후대에 도리어 화두를 간(看)하고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 되는 타성일편의 화두삼매를 드는 일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 간화선도 사마타와 위빠사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각국사어록에 간화일문(看話一門)에 정혜쌍수(지관쌍수)가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마음의 본성은 본연 그대로
허망한 생각이 마음 방해해
조사의 언구로 망념 없애고
공함 알아 본래면목 찾아야

무심공부의 망념제거는 붓다의 수행법에도 그대로 이 망념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다른 이름은 곧 보리(菩提), 법계(法界), 진여(眞如) 등이 있다. 따라서 몸(身)과 감각(受)과 마음(心)과 현상(法)을 관찰하더라도 연기의 다른 이름인 (無常卽空)를 관찰하도록 한다. 무상을 관하고 있을 때는 신-수-심-법이 공하고 망념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인 본래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무상즉공을 통하여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행의 시작도 무상즉공이요 그 끝도 무상즉공이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붓다가 부정한 수행법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은 사고의 작용을 끊어 없애는 수행을 부정한다. 그래서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 "수행자가 마음을 허공같이 하여 앉아 있으면 생동감을 잃는다. 생동감을 잃은 마음은 분명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로 무기공(無記空)에 떨어지게 된다"고 설한다. 선정의 힘으로써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써 무기(無記)를 다스려야 하는데 밝은 혜가 없으면 혼침하여 무기의 상태에 떨어진다. 무기공은 무지 무명이다. 마음을 소멸시켜 생각을 없게 하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육조단경〉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무념(無念)이라 여겨 생각을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각 없음' 이라는 개념에 묶여 있는 것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邊見]일 뿐이다"라고 하여 무념이라고 하여 생각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무명이라고 설한다. 생각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외도수행이다. 이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념은 단지 탐진치로 오염된 생각(망념)이 없을 뿐이다.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는 경구에 즉각 깨달음을 얻었다. 즉 허망한 망념에 의해 지어지는 삼계 속에서 살면서도 삼계의 마음을 짓지 않는다. 겉으로는 삼계를 짓는 것 같아 보여도 응무소주이생기심 하고 있는 한에는 매순간 삼계의 마음이 없다. 무아가 진실이지만 붓다도 '너' '나' 라고 분별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의 관습에 따를 뿐, 진실이 여전히 무아이듯 그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인 생각이 중생을 위하는 작용으로 바뀐다. 지혜가 없으면 생각은 망념이 되어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면 생각 생각이 불생불멸하는 모두 진여의 작용이라 세간에서 삼계를 지어도 모두 진여의 모습이므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망념이고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은 정념이며 지혜이다. 명심할 것은 사고의 작용 즉, 생각을 없애는 수행은 외도의 수행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잘못된 기억인 망념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비 수관

21세기는 풍족한 물질문명시대를 지나 안으로 마음을 닦는 명상의 시대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상위계층에서부터 30~40여 년 전부터 명상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다양한 명상법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바 있는 조사선의 돈오법이 최상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최적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시대에는 지구 온난화, 테러, 전쟁 등을 완화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명상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심성이 각박하고 탐욕과 분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심을 드러내고 증장시킬 때 테러와 전쟁이 줄어들고 탐욕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사라질 것이다. 자비심의 싹을 키우고 증장시켜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슬픔과 해치고자하는 마음을 줄이고 없애는 명상으로 자비선이 있다. 자비선 가운데 자비수관은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고 세속의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어 생로병사가 없는 본연의 마음자리인 열반과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명상이다. 이 명상의 궁극은 보리심을 일으켜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 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다.

자비수관은 자비심을 중심에 두고 몸을 주된 관찰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감각, 의식, 현상을 관찰하는데 나타나는 명상의 경계를 자 · 비 · 희 · 사 사무량심과 무상 · 고 · 무아 · 열반(공) 사법인의 상응하는 수행단계를 갖추고 있다. 자비수관은 정념으로 삼법인을 관찰하고 삼해탈문에 들어가 열반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비공관은 사무량심을 보리심으로 확장하여 일행삼매 속에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어 깨달음을 얻고 궁극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비선은 오로지 붓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정통 수행법으로서 잘못된 수행법이나 극단적인 수련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한 길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 금산사 2018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마음쉬는 금요일

공통 프로그램 국보 62호 리얼클래스, 미륵전 탁본체험, 오유지족 다식체험&차담



몸과 마음이 피곤한 금요일!
전통산사를 찾아 지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쉬는 금요일 1박 2일

참가 : 3만 원(1박 2일, 숙식비)
예약 : www.geumsansa62.com
문의 : 010-6282-7762＼063-548-4442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김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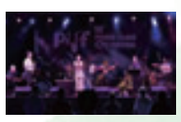
4.27(금)~28(토)
토크콘서트: 금산사 편액의 비밀
김병기 서예비엔날레총감독 & 가야금 3중주 **김영언**



5.25(금)~26(토)
토크콘서트: 생명세계와 시詩
서정시인 **문태준**, 가수 **박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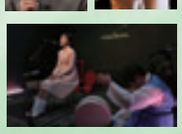
6.22(금)~23(토)
특별프로그램: 창작판소리극
모던판소리 송봉금외 9명



7.27(금)~28(토)
특별프로그램: 창작판소리극
모던판소리 송봉금외 9명



8.24(금)~28(토)
토크콘서트: 미륵부처님과 심청이
김홍근 동국대 선학과 교수 & 대금스타일 **이창선**



10.26(금)~27(토)
특별프로그램: 창작판소리극
모던판소리 송봉금외 9명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종무소 063-548-4441~2 팩스 063-548-1390 www.geumsansa.org geumsansa@hanmail.net



대행 스님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집념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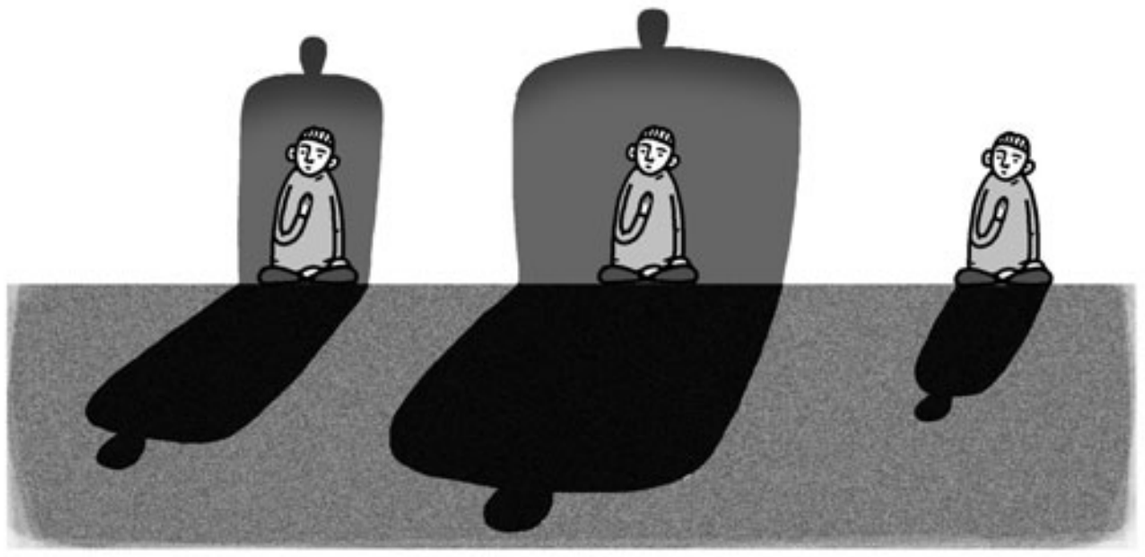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불상도 때려 부숴 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집념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과 모든 인류와 전 우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뭘,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이고 현실세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이 그렇게 많답니다.

생사에 관한 건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여러분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벌레가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화(化)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세요. 우리가 껍데기를 벗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악이면 악대로 선이면 선대로 다시 돌아 나오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보신(報身)이 되고, 보신으로서 화해서 응신(應身)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과 둘 아니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편이라고 할 때 '방편 아닌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해탈문 아닌 해탈문이고요. 이게 해탈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떠나서 그 속에서 알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도 또한 체가 없어서 붓장도 벽도,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없이, 한생각이면 한 찰나에 들고 나죠. 내가 이런 말을 잘하죠. 빛보다 더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모두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화하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고,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둘 아니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날까지 사람으로 화해서 살아온 본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벗어나서 자유권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남도 자유권을 얻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생이, 물에서나 들에서나 공중에서나 이 지상에서나 모두, 생명들이라 하면 다 그래도 뭔가 살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대로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는 반면에 또 바뀌지고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한다면 콩은 콩이지 팥이 될 수는 없어요.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즈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나가던 벌레가 죽기도 하고, 지나가는 구렁이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뱀 하나가 인간으로 환토를 하려면 얼마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백날을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하고, 사람이 먹는 거를 다, 소상히 사람과 같이 습득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먹는 간장을 다 삼켜야 된단 말입니다. 일곱 번, 세 번을 먹어야 된다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서 자기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인간과 맞대면해서 자꾸자꾸 접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과 같은 의식을 얻게 됨으로써 자기 몸을 벗고서 인간 환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태몽을 꾸면 뭐, 토끼를 봤다는 둥, 개를 봤다는 둥, 돼지를 봤다는 둥, 구렁이를 봤다는 둥, 소를 봤다는 둥, 인간을 봤다는 둥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를 봤다든가, 또는 배나무를 봤다든가 하는데, 배나무나 꽃나무나 이런 것은 육식 동물로서 생활을 하지 않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식 동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살던 그런 영혼은 꽃이나 과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렁이는 무슨 뜻이냐? 구렁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고 깨고 먹고 생활하는 그 용(用)을 말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태몽을 꾸었다 하면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니까. 그래서 태몽을 꾸는 어머니의 생각 자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어린애가 나와서 진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한생각에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용(龍)이라고 해서 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큰 자손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아주 활력적인 생활을 하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간 사이에 아주 빛이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를 봤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돼지다, 소다 이러지 마시란 얘깁니다. 소가 보였다 하면, 남한테 인정을 베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 남을 주었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 할지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슬픈 영혼도 있고 즐거운 영혼도 있고, 아픈 영혼도 있고 애달픈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보면 그냥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나쁜 생명들이 어딨겠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허허, 문득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장희빈이 악하다고 했는데,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모두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놈도 없고 준 놈도 없이 그냥그냥 서로가 다 나빠진 거죠.

애당초부터 나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아무리 배고프고 춥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마음만은 근본을 지켜라. 인간의 진짜 진실한 마음을 상실치 말아 다오. 그것을 상실하면은 세세생생 구르면서 조금도 벗어날 길이 없다. 어둡고 괴롭고 고가 많고 슬프더라도 모두가 내 탓이려니 하고 참고 견디는 그 아리따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다 얻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막히는 데가 없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모두가 실질적인 내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요. 앵무새와 같이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그 자체의 진실한 근본을 진짜로 믿고 나간다면 바로 자유인이죠. 알고 보면 서로가 똑같은 지경입니다.

부처님이 위대하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러냐.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위대하시기만 합니까? 걸레처럼 닦아 주고 씻어 주고, '내 몸은 더럽더라도 네 몸은 깨끗해라.' 하고 그냥 닦아 주고 하는 그런 길잡이와 같이, 즉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마음이죠. 허허허…. 그러니 부처님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나, 자기를 다 주고 희생해 가면서 자식을 낳아서는 또, 내 몸을 자식한테 먹고 자라라고 다 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러나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듯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서 자손이 났다 할지라도 그 자손을 크게 이루시려면, 또는 자기를 낳아 준 부모들을 크게 한도량에 건지시려면 내가 첫째, 한마음으로 구성된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다복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배우고 웃고 즐기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모두가 자식이다 부모다 또는 나다 형제다 하는 가설이 다 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다." 했습니다.

한 25년 전인가? 아마 한 30년은 못 됐겠죠. 어떤 어려운 과수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과수원까지 돌게 됐어요. 그래 그 과수원 집에서 나물해서 밥을 얻어먹고 돌다 보니까, 그 집에서 "스님!"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3년을 내리 두고, 해마다 꼭 요만큼씩하게(검지손가락 절반 정도를 짚어 보이시며) 사과가 열려서 지금 학교에 등록금도 못 내고 우리 식구가 다,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하셨죠? 인간들 사느라고 급급하지, 일체 생물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하고 생활이 같은지,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하셨죠? 그런데 가서 보는 순간, 모두 꽃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꽃같이, 꽃 같은 마음, 그 불꽃같은 마음이 말입니다. 불꽃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니만 여기저기 사방에 다 구름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다. 모두 한마음으로 그저 불꽃같이, 그냥 연기처럼 아주 자욱하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즐거워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아, 옆에서는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사과나무끼리, 끼리끼리 모두 모여서 애당초에 사과나무가 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과가 많이 열릴 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렸으면서도 사과 하나가 이만큼씩 하게 (양 손을 벌려 모아 보이시며)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먼 데를, 첫 번째 판 거를 조금 넣고 사과하고 같이 토굴로 가져왔습디다. 그렇게 가져온 거를 큰절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여하면요. 그렇게 아예 한마음으로 그냥 하면 그 세계가, 삼 세계(三世界)가 바로 삼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삼 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써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한마음 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만생이 어찌 따로 떨어져 있으랴. 한도량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관한 건을 모두 따로따로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보시(布施)라든가 지계(持戒)라든가, 인욕(忍辱)이라든가 정진(精進), 선정(禪定) 이런 문제를 다 각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 속에는 그 여섯 가지뿐만 아니라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왜 여섯 가지뿐이겠습니까? 여섯 가지를 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한마음에다 모든 거를, 선도 감사하게 놓고 악도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선하게 나오는 것도 너다.' 하고 선과 악을 다 놨을 때 비로소 스스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콩이나 팥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콩과 팥, 일체를 모두 다 한데 합쳐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현도 되고, 법신도 되고, 부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전부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속의 자생중생들에게 항복을 받아야, 조복을 받아야 일체 중생들을 나 아님 없이 조복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에 끝닿은 데 없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꼭 집어서 알려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땐 참 답답해요. 방에서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거닐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면요, '아이고 참, 이거는 어떻게 까 보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급한 것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뛰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 글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아침이면 저기 가서 한 삼십 분 동안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러던가 뭐, 하하하…. 그렇듯이 하여튼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풀 한 포기 봐도 모두가….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거는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 배 속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한생각이면 제도가 되는 건데. 아주 정말, 내가 이 소리는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빨리 죽어야지' 할 수도 없고, 하하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리궁리하다 보니까 '응, 모두 내가 돼 주면 되겠구나. 내가 꼭 보이는 것만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혼의 근본, 이 마음은 허공에 꽉 차게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효를 막론해 놓고 다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죽어도 바로 그네들이 나니까,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살아서 그렇게 경험을 해 보지 못한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자기 자생으로서 조복을 받아 가지고, 화해서 바깥의 모든 거를 조복을 받아 가지고, 응(應)해서 모두 이렇게 응신이 되어 나가서 내가 돼 보니까 '아, 죽었다 살았다 할 게 없이 그냥 여여하구나.'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하려는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지, 자기 몸뚱이가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자생중생들이 수없이 살고,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사는 집인데 그 중생들의 수효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내 식구들의 자생중생들을 전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겠지요. 내 자생중생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몸을 가리키시면서) 성립된 거거든요. 이 집이 생긴 거거든요. 이 집이 생겼으면 그 자생중생들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집합소이지, 어째서 그것이 '나' 냐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色)이 즉 공(空)이다. 공이 즉 색이니라. 그러니 둘이 아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는 한 공체(共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심(共心)이자 공체(共體)이자 공용(共用)이자 바로 공식(共食)이자 공생(共生) 아닙니까? 이것이 '나' 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 라고 내놨다 하면 손해가 가요. 여기 수만 명이 이렇게 한데 합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가 이거는 내 물이고, 그거는 내 물이고, 저거는 내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떠 가도 '아, 떠 가나 보다.' 할 뿐이죠, 줄지 않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다라면 내 마음을 한 번 주고 두 번 준다 해도, 상대방이 떠 간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거다 이거야.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공체이기 때문에, 공심이기 때문에, 공생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공생으로 살고 공체로 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 가 업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병고가 있고 가난이 붙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건 여러분이 신기하고 묘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관습에 의해서 이날은 손이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손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돌아가는 날, 이사 가서 좋은 날을 내가 택하면 그냥 법이다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몸뚱이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나라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벌었다 하고, 내가 즐겁다고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苦)가 있는 대로 착착 붙죠.

'고' 하면 수천 가지가 한데 합쳐진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새록새록 많은 거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게 되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그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이. 그러나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생명들인데 내가 혼자 산단 말은 안 해도,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잘했어도 자기가 했고 못했어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두? 그런데 그거를 바꿔 보세요. '으응,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도 빼놓지 않고 주인공이에요. 더불어 같이 한 거니까 같이 한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자기 혼자가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 속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해결해야죠, 네?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내가 혼자 했다고 이렇게 꺼덕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맡아라.' 이러곤 그냥 다 안겨진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꼭 고통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꼭 구를 것만 같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더불어 같이 주인공이, 그렇게 자빠지게 하는 것도 너니까 괜찮게 하는 것도 너다. 에이 그,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차가, 그러니까 운전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리굴렀대요. 굴러서 차는 바스러졌는데 운전수도 자기도 또 같이 탄 사람도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사람은 아주 그냥 감쪽같이 멀쩡했답니다. 그냥 사람은 내던져 놓곤 차만 굴러가서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는 아까 했던 생각이 기억나서 웃었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내던져 놓고 차만 갖다가 박아 놨네.' 이러고요. 그러고 이차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마음이, 그 의식 자체가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해결을 하지, 내가 개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침착하게, 자기 몸뚱이를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를 터득을 하면요, 다 터득이 돼요.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어서,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밤과 낮에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누어졌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됨으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무엇을 어떻게 했든 무엇을 들었든, 모두 벌써 과거로 돼 버렸어요. 과거가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겠다 하면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에요. 보신이자 또 금방 화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예전 공부한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에 그대로 살아나가고 그대로 굴러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너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구나." 이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괜히 내가 여러 말을 했네요. 질문들 하시라고 그럴걸, 아이구!

어둡고 괴롭고 고가 많고 슬프더라도
모두가 내 탓이려니 하고 참고 견디는 그 아리따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다 얻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위 법문은 1995년 4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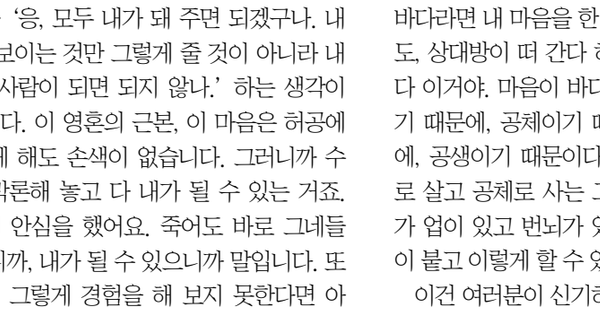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신화 종합 불사 안내

- 전통한옥 철거, 개축, 신축 전문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장엄, 인등, 연등, 불교용품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다수의 사찰 매물 있음
- 이동식 주택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010-6545-2020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굿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 현불 논단 |

다시 직업윤리를 생각하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잘못 입고된 주식 즉각 매도한
삼성증권 우리 사주 배당 사태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일'

모든 건 '직업윤리의 붕괴' 귀결
전문직 높은 수준 도덕성 요구돼
이들의 윤리 결핍은 사회적 해악

올바른 직업윤리가 필요한 시대
삿된 생각 않는 '정사유' 선행돼야
佛法, 현대적 실천윤리로 재조명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입고된 주식을 즉각 매도하여 증권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관한 글 청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엉성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주식매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공매도니 유령주식이니 하는 용어는 생소했지만 누가 보아도 어이가 없겠다 싶다. 주식은 흔히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는데 주식배당사건이 한국 최고의 기업군에 속하는 삼성증권에서 일어났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는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맷돌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이번 사건은 크게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로 나누어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결국은 '직업윤리의 붕괴'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자아실현에 큰 기여를 한다.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동서고금을 통해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서양의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이어져 왔다.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았다.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精神)이 전해져 왔다. 또한 우리의 전통 속에도 장인정신(匠人精神)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장인정신이란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면서 최고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달된 물건을 확인도 안하고 되팔아 이득을 취했고, 그 중 일부는 잘못 배달된 줄은 알면서도 되팔아 버렸다. 여기에는 팀장도 있고 증권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한다. 보통사람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하지 못할 일이다.

자기 통장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잠깐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편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문직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전문직이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종으로 독점성과 자율성을 승인받은 직업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직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들은 윤리적 결핍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팔정도(八正道)의 정명(定命)사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팔정도는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에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정명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재물을 얻는 것이다. 정명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바른 생각을 가는 것이다. 삿된 욕망의 벽을 넘어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정사유일 것이다. 붓다 다르마가 현대적인 실천윤리로서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삼성증권 임직원 200여명이 집단적으로 반성문을 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왠지 낯설고 서글퍼 보인다. 반성은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개인의 아픔과 고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社說

文 대통령 법난 사과를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10.27법난 발생 38년만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 1988년 12월 강영훈 前국무총리가 10.27법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어서 불교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4월 17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 힘써준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는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신군부가 전국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한 10.27법난이 그것"이라며 "불교계에 남은 깊은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독재정권의 대규모 불교탄압사건으로 한국불교 현대사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당시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둔 신군부 세력이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관련자들을 강제연행해 고문한 이례적 불교탄압이었다. 그럼에도 27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되는 아픔을 겪었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사과한 바가 없다.

문 대통령은 기원법회에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돼 한국불교가 더욱 융성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난 38년간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일 것이다.

사찰 안전교육 필요하다

최근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한 국내 최대 유통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문제는 이 매장에 심장제세동기를 비롯해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응급상황에서의 초동대처에 대해 사측과 유가족 및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 모 사찰에서도 3000배를 하던 한 고령의 어르신이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 사찰 측은 응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이 어르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1년간 이 사찰과 유가족은 책임공방을 벌이게 됐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른바 '심장제세동기'를 제때 사용하는 것은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넘어 이른바 골든키로도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심장제세동기' 보급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0월까지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29곳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사찰은 지리적으로 산중에 위치한 점과 고령의 연령층이 찾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심정지 등 심장질환과 같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욱 응급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조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단 점이다. 사찰에서의 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은 늘어나는 탐방객, 그리고 고령화되는 불교신자들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라도 전체 사찰에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기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①이집트서 보내는 편지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1일까지 승려해외연수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해외문명기행'을 진행했다. 당시 연수 진행을 담당한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서간문 형식의 기행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스님의 기행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사막 바람 · 스핑크스가 내린 설법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내 사랑하는 벗이여!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중동의 땅은 온통 회색빛 사막의 향연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와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 ·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책을 통해 보았던 이집트 문명의 현장과 유적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가슴 뛰는 설렘과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스핑크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못 기대와 흥분을 자아냅니다.

먼저 카이로 기자지구의 피라미드 앞에 섰습니다. 사막위의 신기루인양 5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신비롭고 위대한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파라오의 장생(長生)을 위한 인간의 헛된 욕망의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노역에 의한 결과물로 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 모든 이의 삶과 비원(悲願)이 빚어낸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법사인 혜국 스님께서도 "깨달음의 여정이자 수행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석양에 물들어가는 피라미드 앞에는 전설의 동물인 스핑크스가 침묵 속에 지난 역사와 세상의 비밀을 말하는 듯합니다. 사막의 바람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스핑크스의 침묵의 언어를 통해 시공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삶과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과 희망,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스완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여를 달려 룩소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룩소르 신전이 자리하고, 강 서쪽에는 왕가의 계곡과 핫셉수트 장례전, 그리고 멤논의 석상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고나면 그리스나 로마문명의 유적은 그 아류인지라 눈에 안 찬다고들 합니다. 며칠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 문명의 보고(寶庫)가 바로 이곳 룩소르입니다.

카이로에서는 자신만의 신앙과 열정을 간직한 콥트 기독교인의 거주지와 그들이 세운 모카탐 동굴을 방문하였습니다. 석회암을 뚫어 2만여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동굴교회 의자에 앉아 잠시 좌선한 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 쓰레기 더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기를, 제2. 제3의 모세와 요한, 그리고 예수가 나오기를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아니, 다음 생에는 이곳에 태어나 불법을 홍포하기를 서원하여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서는 히잡을 두른 어린 소녀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천진한 눈동자가 아름다우며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고 깨달음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듀! 이집트여, 내 사랑이여!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1.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2.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3.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4.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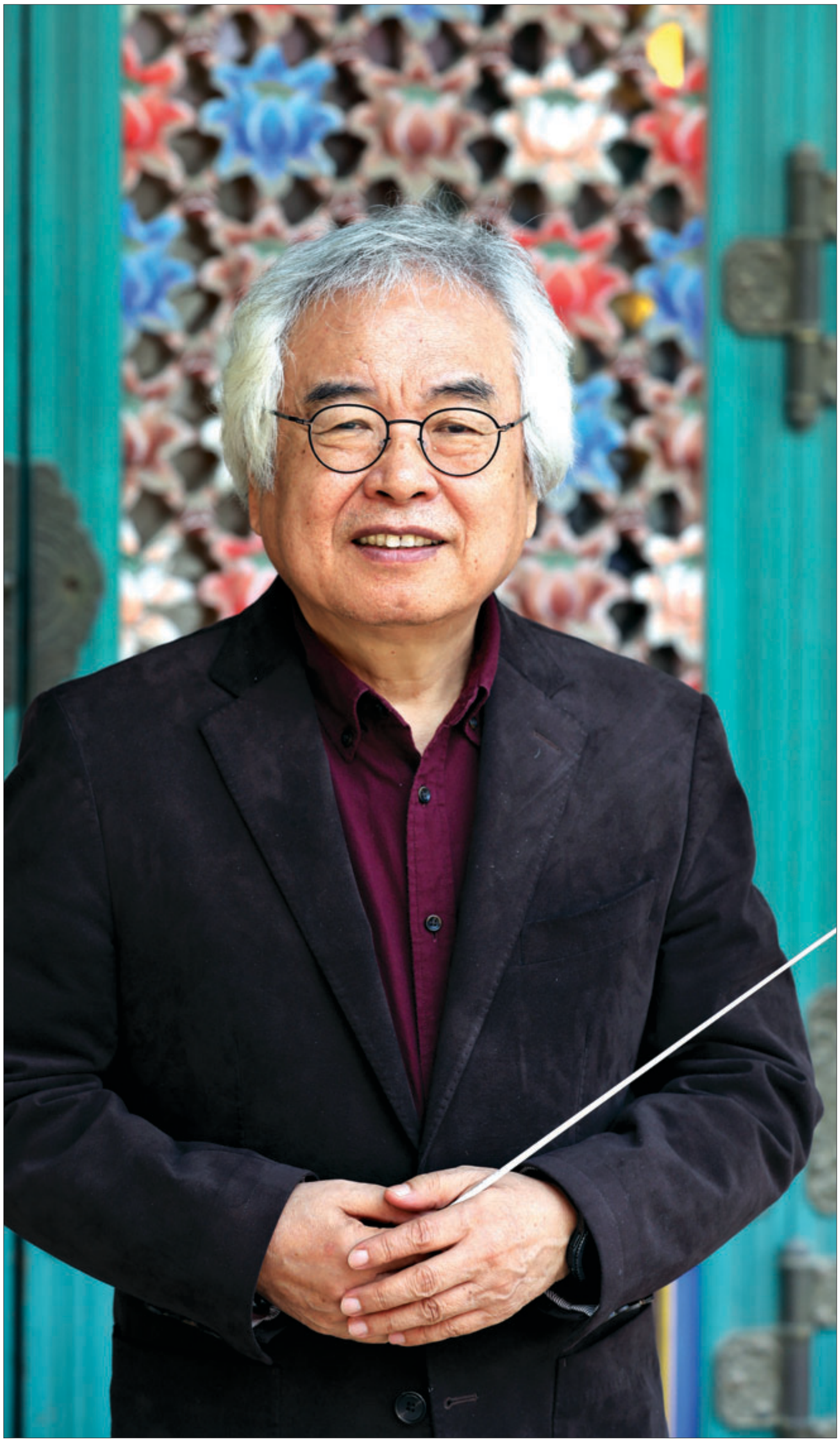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우리 찬불가 찾아 나선 진감의 제자



산문 밖의 禪

박범훈 작곡가
(70 · 조계종불교음악원 원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오신날' 등 34곡이 수록된 음반 '박범훈 뭇소리 찬불가' 2014년 발표.

이어지는 음악과의 인연

초교 때, 풍금소리에 매료

중교 합주부에서 트럼펫 시작

남사당 만나 국악과 인연

"국악은 불교음악 그 자체"

고교 때, 국악의 거장들 만나

평생 우리 찬불가를 위해 살고 있는 음악가가 있다. 그는 국악이 '불교음악'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으며, 그 사실에서 출발한 음악가였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사실과 세상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달랐음에 그의 삶은 늘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는 우리 찬불가의 정체성을 찾고 찬불가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살았다. '붓다', '찬미의 노래', '부처님 오신날', '날마다 좋은 날' 등 우리 귀에 익은 찬불가를 지은 작곡가 박범훈 조계종불교음악원 원장이 그이다.

풍금소리가 좋았던 소년

박 원장은 1948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먹을 것, 보고 들을 것, 놀 것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박범훈의 마을 역시 그랬다. 소년 박범훈은 어느 날, 학교에서 풍금소리를 듣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 음악시간이었다. 처음 듣는 담임 선생님의 풍금소리에 소년은 온 마음을 뺏겼다. 박 원장은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음악시간이 즐거웠다. 박범훈은 음악에 소질이 있었다. 박범훈을 알아본 선생님이 박 원장에게 풍금을 가르쳤다. 그때부터 박 원장은 음악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다며 저에게 음악에 대한 꿈을 심어 주셨죠. 아마도 그것이 내 음악인생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학예회의 연극 등에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소질과 끼를 보게 된 박 원장은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고,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밴드부(합주부)에 들어가서 트렘펫을 시작한다.

인연의 소리, 남사당을 만나다

트렘펫으로 한창 음악에 대한 열정을 태워가고 있던 박 원장은 '남사당'을 만난다. 박 원장의 음악 인생은 '남사당'을 만나면서부터 구체화 된다. 때는 남사당이 쇠퇴기에 들어선 때였다. 신파극과 영화 등 새로운 볼거리의 등장으로 인해 남사당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안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남사당은 박 원장이 살고 있는 양평 마을에 새롭게 정착했다.

남사당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 소리도 가르쳐주었다. 박 원장은 그 때 우리의 소리, '국악'을 알게 된다. 남사당의 꼭두쇠(대표)인 남운용의 부인 박계순이 박 원장을 알아보았다. 종씨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어 박계순은 소년 박범훈을 각별하게 대했다. 박 원장은 그로부터 국악기를 배우고 국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꿈을 한 층 더 구체적으로 키워갈 수 있었다.

"학교 밴드부에서 트렘펫을 부는 것만으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나와 함께 서울로 가서 음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게 좋겠다."

박 원장은 중학교를 마치고 박계순의 지도와 소개로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스승들이 어마어마했다. 최고의 작곡가 김동진 선생이 가곡을 가르쳤고, 김희조 선생은 음악 이론을, 박귀희 선생은 병창을, 성금련, 김윤덕 선생은 가야금을,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넘쳤다. 이 때 박 원장은 국악에 새롭게 눈뜬다.

"우리의 음악인 국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음악이 불교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국악은 '불교음악' 자체였어요. 제목부터 그랬어요. '염불', '영산회상', '탑돌이' 등등 찬불음악이 국악의 전부라고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박 원장은 중학교 밴드부에서 트렘펫을 배웠지만 국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부터 국악과 불교음악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박 원장은 이 때 국악의 대가들을 대거 만나게 된다. 그 만남들 자체가 그에겐 깊은 공부가 되었고, '행운'이었다. 게다가 박 원장은 우리의 음악에 누구보다 빠른 흡수력을 보였다. 국악과 불교음악에 대한 훗날의 그의 행로와 원력은 이 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훗날 서양음악을 공부하고 나서도 국악과 불교음악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먼 길을 걸어 불교를 만나다

박 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속예술단에서 음악담당으로 활동하며 멕시코 올림픽 등 여러 국제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박 원장은 학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직업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성취는 없었다. 그는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앙대학교 작곡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긴 수학의 시간이 시작된다. 박 원장은 누구보다 긴 수학의 세월을 보냈다. 학부를 마치고도 9년 동안 일본 유학에서 학부를 다시하고 석사를 마쳤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강단에 서기 위해 다시 5년 동안의 박사 과정을 거쳤다. 긴 세월이었다. 그 긴 세월을 살게 한 것은 박 원장의 중심을 떠나지 않은 테마, '우리의 음악'이었다.

박 원장은 긴 세월을 웅크린 만큼 음악가로서의 배고픔이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 동안 작곡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동안의 음악은 박범훈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일본 유학을 마친 그는 이제 박범훈의 '곡'을 쓰고 싶었다. 곡을 쓰기로 마음먹은 그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조용한 절'이었다. 당시 그는 불자가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서 곡을 쓰고 싶었을 뿐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쌍계사의 말사 국사암과 인연을 맺는다. 그 인연은 박 원장에게도 우리 국악과 불교음악에게도 큰 인연이었다.

B2면에 계속

박범훈 작곡가는…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과 음악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또한 우리 음악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에 뜻을 두고, 음악과 관련한 철학과 불교연구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휘자와 작곡가로서 86아시안게임 개막식 작곡 및 지휘를 시작으로 88서울올림픽, 2002한 • 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등에 참여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아시아민족악단 등을 창단해 인재양성 및 우리 음악 대중화에 기여했다. '붓다'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찬불가를 작곡했으며,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작편곡을 위한 국악기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중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 • 아세안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청와대불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조계종 불자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등 다수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보리달마의 선법

B5 문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대가람의 뒷간' 展

B6 학술 · 문화재
현재 힐링담론 한계와 불교적 대안은?

佛心으로 시련 극복… “한국적 불교음악 완성 진력”

‘박범훈 작곡가’ B1면에서 계속



2002년 11월 2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한 · 중 · 일 아시아민족악단 공연에 지휘하는 박범훈.



녹음실에서 찬불가를 녹음하고 있는 박범훈.

국사암의 본사인 쌍계사는 진감국사가 830년 중국 당나라에서 범패를 배워와 최초로 범패를 전파한 불교음악의 본사다. 무어라 설명해야 할까. 박범훈이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이 국사암이라는 것을.

꿈속의 도량석

국사암에서의 첫날 밤. 박 원장은 꿈속에서 노래 소리를 듣는다. 꿈결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낯설지가 않았다. 새벽 4시, 낮에 인사를 나누었던 상훈 스님이 도량석을 돌고 있었다. 상훈 스님의 목소리도 일품이었지만 초겨울 새벽에 듣는 도량석 소리는 만물을 깨우는 소리라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한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소리 같았다.

“그 때 상훈 스님의 도량석을 듣는 순간 많은 것들이 나를 지나갔어요. 그 동안 받아들였던 음악적 동기들이 그 소리를 기다려온 것 같았어요. 진정 내가 만나고 싶었던 ‘소리’였어요.”

그랬다. 그 후로 작곡가 박범훈이 오선지에 올린 음표들은 모두 그 ‘소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박 원장은 도량석을 마친 상훈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들었다. 처음 보는 새벽예불이었다. 박 원장은 신기했다. 왜 진작 이런 소리를 만나지 못했을까. 이어지는 예불소리는 또 한 번 박범훈을 훑고 지나갔다. “지심귀명례…” 그것은 음악이었다.

다시 공부, 이번엔 불교공부

“불교음악을 하기 위해선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교를 모르고 지은 찬불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국사암에서 상훈 스님의 도량석과 예불문을 들은 후 박 원장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박 원장을 다시 수학의 길을 걷게 했다.

당시 그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을 지내고 있었다. 공연이나 연습이 없을 땐 극장과 가까운 동국대를 찾았다. 그리고 점점 면학에 대한 원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후 신설된 박사과정인 예술철학 분야에서 불교와 불교음악 공부를 시작한다. 그는 한국불교음악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찬불가를 쓰기 시작한다.

연구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커져만 갔다. 그의 원력도 커져갔다. 그는 연구 중에도 꾸준히 찬불가를 지었다. 그 원동력 중의 하나가 불교학자 목정배 교수였다. 목 교수는 학자 이전에 시인이었다. 목 교수가 시를 지으면 박 원장이 곡을 붙였다. 그대로 찬불가였다. 그 음악들은 지금도 대중들이 듣고 부르고 있다.

연구와 창작에 매진한 그는 5년 만에 한국불교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논문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를 완성한다. 달마의 소리가 동쪽으로 간 이유, 그리고 그 달마의 소리가 어떻게 한국적으로 변했는가를 밝혀낸 논문이었다. 그는 “국사암 도량석에서 시작된 불음의 인연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논문은 〈한국 불교음악사 연구〉로 묶어져 한국불교음악의 교과서가 된다. 그리고 한국불교음악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3년 불자대상에 선정된다.

새로운 찬불가의 시대를 열다

1987년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는 등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하며 우리 국악계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영역을 넓혀가던 그는 1991년 새로운 찬불가, ‘붓다’를 발표하며 찬불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리고 광덕 스님의 요청으로 만든 국악교성곡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보현행원송’, ‘꽃을 바치나이다’, ‘무상계’ 등 찬불가와 대형합창곡들을 이어서 발표한다. 한국불교음악이 전개된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원장이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박 원장은 그 과정과 성과, 정체성 등에 대해 공부해왔다. 그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찬불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실생활에서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찬불가라고 생각했다.

“현재의 찬불가 중에는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제대로 투영하지 못한 곡들이 많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선지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역사라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음악인들이 제대로 된 불교공부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찬불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후로도 ‘찬미의 나라’,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좋은 날’ 등 수많은 찬불가를 발표했다.

놓을 수 없는 불교

서양작곡 전공했지만 결국 찬불가

일본 유학 등 오랜 세월 수학

논문 〈불교음악의 전래와~ 〉

한국불교음악의 교과서로 불리며

〈한국 불교음악사 연구〉로 출간

국사암에서 도량석 듣고 감화

“도량석은 진정 기다렸던 소리”

찬불가 ‘붓다’, 찬불음악 새 장

‘보현행원송’ ‘부처님오신날’ 등

대중화 위한 찬불가 40여 년 발표

옥중서 휴지에 ‘니르바나’ 작곡

6월 1일 공연서 초연 예정

“여생 찬불가 하면서 살고 싶어”

뜻밖의 시련, 시련이 가져다 준 불심

2015년 박 원장은 뜻밖의 시련을 만난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는데, 재직 시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절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덕함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불교계나 중앙대 등 그 동안 저에게 언덕이 되어준 사부대중께 심려를 끼친 점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박 원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곳에나 부처가 있었어요. 옥중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소중한 삶을 짊어진 중생들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었어요. 나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불자들의 성원의 소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부처님과 대중의 고마운 마음으로 겪어내며 힘든 시간을 오히려 수행의 시간으로 삼았다. 그는 그 마음을 음악으로 옮겼다. 그는 옥중에서 찬불가를 지었다. 휴지에 오선지를 그리고 음계를 그렸다. 그리고 출소한 후 그 곡들을 완성시켰다. 그 중 한 곡이 6월 1일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마지막 곡으로 선보일 20분짜리 합창곡 ‘니르바나’이다.

형을 마친 그는 지난 해 7월 재가자로는 처음으로 조계종불교음악원 원장에 임명됐다.

“불교음악원은 앞으로 예불음악을 비롯해 생활찬불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교육, 실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찾고 불교음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그는 여생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찬불가 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부처님과 함께 걱정해준 사부대중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두 말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연등 불빛과 함께 그의 노래 ‘부처님 오신 날’이 벌써 들려오는 듯하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달마선, 중국 선종의 초석 다져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⑧ 보리달마의 선법



그림 · 강병호

달마선을 여래선 혹은 능가선이라고 칭하는데, 달마선이 중국에 전파되기 전인 북조시대까지는 여전히 많은 선승들이 신통을 사용했다. 제왕은 물론이거니와 일반백성도 이 신기한 이적에 매료되어 갔다. 그러나 달마대사가 중국에 출현하면서 이러한 신비적 요소들이 많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은 곧 벽관안심(壁觀安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벽관선법은 안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며, 안심은 곧 반야실상과 불성(심성)사상을 결합한 선법체계로 자성불성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적 신통이나, 대상(觀象, 觀想) 및 단계적인 수행법에 의지한 깨달음이 아닌, 자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本性淸淨 本性寂靜) 세계를 깨닫는 것, 즉 자성자도, 자수자오(自性自度, 自修自悟)이다. 그래서 선종의 핵심은 명심견성 (明心見性) 혹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달마의 저술이 후대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즉 〈이입사행론〉 〈파상론〉 〈혈맥론〉 〈오성론〉 및 둔황의 출토본으로 〈달마화상절관론(達摩和 絶觀論), 〈석보리달마무심론(釋菩提達摩無心論)〉, 〈남천축보리달마선사관문(南天竺菩提達摩禪師觀門)〉등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위작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이입사행론〉만이 달마의 저작으로 고증되었으며, 내용은 벽관안심에 대한 것이다. 달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도선율사(596-667)가 지은 〈속고승전〉에서 '벽관사행(壁觀四行)' 은 달마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다. 정각(淨覺)이 지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도 '벽관사행' 이 기록되어 있으며, 〈경덕전등록〉에서도 〈능가사자기〉의 기록을 인용해서 '벽관사행' 을 전하고 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보리달마가 해로를 통해서 중국에 도착한 후 얼마간을 지금의 광동성 광주에서 머물다가 건강(建康 · 지금의 남경)에 도착해서 양무제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못해서인지 서로가 원하는 바는 성취하지 못한 채, 달마대사는 지금의 하남성의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시절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 그 후 혜가의 구법을 통해서 안심(安心)이라는 법인(法印)과 '이입사행(二入四行)' 및 〈능가경〉 4권을 전수해 주었다. 달마대사가 원적한 후에 혜가는 한 동안 은적했다고 전해지며, 그 후 도속을 막론하고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면서 배움을 구한 후에 전법을 펼쳤다고도 한다. 혜가는 승찬에게 법을 전한 후에 개황(開皇 · 581~600)때 앉아서 입멸에 들었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혜가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도항(道恒)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문하에 천여 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당시 혜가의 가르침을 마설(魔說)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항의 제자 가운데 한사람을 몰래 혜가에게 보내서 논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제자가 도리어 혜가에게 설복을 당해서 도항 스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사실은 안 도항 스님은 마음으로 더욱더 혜가를 원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혜가가 전한 유송역(劉宋譯) 〈능가경〉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송역(劉宋譯) 〈능가경〉은 문체가 비교적 난해하고 어려웠다고 하며, 반면에 북위 때 보리유지(菩提流支)가 번역한 10권〈능가경〉은 비교적 문체가 수려하고 유창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북위의 학승 내지 사대부들은 유송역(劉宋譯) 〈능가경〉을 멸시하고 능멸하였다고 한다. 이 관점은 후세에 당나라 때 지거(智炬 · 혹은 혜거 승지(勝持)가 공동으로 편찬했다고 하기도 한다)가 지은 〈보림전(寶林傳)〉에 나오는데, 〈보림전〉에서는 보리유지가 선학사상이 같지 않은 이유로 달마를 독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곧 유송역 〈능가경〉과 북위 때 〈능가경〉의 쟁론을 근거로 보리유지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한역된 〈능가경〉은 세 종류가 있다. 곧 유송(劉宋) 때 중천축(中天竺) 사문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번역한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4권으로 최초의 역본이고, 북위 때 북천축(北天竺) 사문 보리유지가 번역한 〈입능가경(入楞伽經)〉 10권이 있고, 당나라 때 우전국(於 國) 삼장법사 실치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7권이 있다. 그 외도 산동성 대승정사에서 발견된 〈능가경회역(楞伽經會譯)〉이 있다.

비록 보리달마의 정확한 사자전승(師資傳承)은 고증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후래인 들이 남긴 몇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 394-468)가 초조가 되고, 보리달마가 2조가 되고…, 이하 신수가 7조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하택신회는 남종이 전통이 된다고 굳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남종선은 대체로 달마가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가 되고, 이어서 혜가(慧可)→승찬(僧璨)→도신(道信)→홍인(弘忍)→혜능(慧能)이 육대(六代)가 되서 일맥상승(一脈相承)했다고 한다. 그러나 질가야(吉迦夜), 담요(曇曜)가 번역한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에서는 서천세계(西天世系)의 계맥이 있다. 당나라 지거(智炬)가 지은 〈보림전(寶林傳 · 801)〉에서는 인도의 가섭존자로부터 사자비구가 24세가 되고, 바사사다(婆舍斯多), 불여밀다(不如蜜多), 반야다라(般若多羅)에 이르기까지 법을 전승해서 보리달마는 28세가 된다고 한다. 이설은 오대 남당의 정, 균 두 스님(五代南唐 靜, 筠 二師)이 집성한 〈조당집(祖堂集 · 952)〉, 영명연수(904~975)가 지은 〈종경록(宗鏡錄 · 957년)〉에 기록되어 있다. 또 송나라 도원(道原) 스님이 지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 1004년)〉과 명교계숭(明敎契嵩 · 1007~1072) 스님이 지은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 1061년)〉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후래에 이 설은 선종의 정통설로 굳어졌다.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서도 달마대사가 선종의 창시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나발타라가 초기선종에 기여도는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소한데, 아마도 후대 제자가 번성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선종 핵심은 '명심견성 견성성불'
달마선은 마음의 본성 깨치는 것
인도선과는 현저히 다른 수행법

달마의 수행법이 처음에 중국에 들어와서 전통선법과 다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복잡하고 번다한 선법을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의 선법을 주장했던 이면에는 안심(安心), 벽관(壁觀)이라는 수행법의 기여가 컸던 것 같다. 안심(安心), 벽관(壁觀)의 수행법은 초기선법의 수행법과 같은 듯(차제수행법과 선정을 중시하는 것) 다른 모습(파격적인 차제 타파)은, 기존의 수행법을 행하던 사람들과 필연적인 마찰을 불러 왔고, 이로 인해서 배척과 비방을 감수해야 했고 급기야는 소림 9년 면벽이라는 역사적인 행적을 남겨야 했다. 이렇듯 벽관안심 사상이 점점 발전을 이루면서, 마침내 선종의 중요한 표석인 '명심견성 자성자도(明心見性, 自性自度)' 의 초석을 다지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능가사자기〉에서 구나발타라를 초조로 달마를 2조로 기록하면서, 달마선법의 요체는 안심법문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여시안심(如是安心), 여시발행(如是發行), 여시순물(如是順物), 여시방편(如是方便)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대승의 안심법이다.(此是大乘安心之法)"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와 같은 안심이라는 것은 벽관이며(如是安心者. 壁觀), 이와 같은 발행은 사행이며(如是發行者. 四行), 이와 같은 순응이라는 것은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을 방비하고 보호하는 것이며(如是順物者. 防護譏嫌), 이와 같은 방편이라는 것은 그 집착을 보내는 것이다.(如是方便者. 遣其不著)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입사행론' 이다."고 했다.

비록 〈혈맥론〉이 위작이라고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달마의 선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법의 요체는 마음(心)을 닦는 것으로 역시 안심(安心), 벽관(壁觀), 이입사행(二入四行 ·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생략 하겠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달마는 인간의 의식(정신)적 활동 및 일체행위를 관장하는 것을 마음으로 보았다. 즉 '각성(覺性 · 일체중생이 모두 다 구비하고 있다)이 곧 부처와 동일하며, 행주좌와 어묵동정 등 일체행위가 모두 자기의 영각지성(靈覺之性)의 자체이며, 성(영각지성)이 곧 마음이며(性æ 是心), 마음은 곧 부처이며(心æ 是佛), 부처가 곧 도(佛æ 是道)이며, 도는 곧 선(道æ 是禪)이다. 만약에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若不見本性. æ 非禪也.)' 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달마는 '본성이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은 곧 성이다. 곧 이 마음은 제불의 마음과 같다. (本性æ 是心. 心æ 是性. æ 此同諸佛心) 전불후불이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 마음을 제하고 밖에서 부처를 얻을 수가 없다.(除此心外. 無佛可得)' 고 했다. 이후 이 관점은 선에 대한 선종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기도 했다.

규봉종밀(780-841)은 선원도서전집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달마는 벽관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심을 가르친다.' (達摩以壁觀敎人安心). 그는 다시 안심법에 관해 요약하기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을 쉬어서,(外息諸緣, 內心無喘),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心如牆壁, 可以入道)' 고 하고 있다. 다시 이 관점을 재 요약해 보면, 주관(我執)과 객관(法執)이 끊어지면, 깊은 선정을 통해서 도에 진입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연화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연들은 자성이 없는 자성으로, 마치 거울속의 모양과 같다.' (諸法從因緣生. 無自性. 如鏡中像) 곧 존재의 실상인 공의 실상을 깨닫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달마선법은 초기 선법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러 번 언급 하였듯이 인도선은 주로 수식관 등 고요히 몸을 조복하고 금욕 등의 차제수행법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달마선법은 차제를 거치지 않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직관하는 수행법으로, 마음의 본성을 깨치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법으로 인도선과는 현저히 다른 수행법이었다. 이 마음의 본성을 중시하는 가풍이 바로 달마의 가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중국 선종의 가풍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달마가 주장한 안심(安心), 벽관(壁觀)수행법 등은 기본 전통 인도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강조하지도 않았다. 즉 안심, 벽관선법은 자심의 본래청정심을 의지해서, 밖으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근본 번뇌인 삼독심을 끊어버리고 무념(無念), 무착(無着)의 상태인 본성청정, 자성청정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안심의 종지를 삼았다. 그러나 '안심' 법문의 주장은 달마가 최초가 아니며, 구나발타라도 안심법문을 주장했다. 구나발타라의 안심사상은 〈능가사자기〉와 〈종경록〉에 수록되어있다.(지면상 생략)

결론적으로 초기 선법의 차제 수행 및 번다한 종교의식 등에 비추어보면, 선종에서 강조하는 자성자도(自性自度)의 수행법도 사실은 달마선법의 직관 사유의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의 수행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즉 후세의 선종에서 자주 사용했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하는(饑來吃飯, 困來卽眠)', 일상생활 속에 응용되어진 실생활의 수행자세가 곧 안심 수행법의 계승은 아닐까?

〈동국대 강사〉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약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원기둥 7.5Φ×29cm
돈타레 5.6Φ×26cm
밀대 4.7Φ×24.5cm
돈타레 5.6Φ×27cm
6.5Φ×30cm
5.9Φ×18cm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108게송으로 전해듣는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붓다! 기쁨의 노래

월호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을 담은 책을 경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전은 처음의 형태가 아니었다. 부처님 입멸한 후 승가에서 합송(合誦)하며 전해온 부처님 가르침은 게송, 즉 노래 형태였다. 승가의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암송하며 구전으로 전승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님 입멸 후 몇 백 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게송이 산문이나 설명조의 긴 문장보다 기억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하며 구전으로 기억한 원초적 형태에 더 가깝다.

월호 스님<오른쪽 사진>은 부처님 생애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과 부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출가수행자 및 재가 신도들의 일화를 소재로 한 108가지 게송을 한데 모아 〈붓다, 기쁨의 노래〉란 제목으로 책을 엮었다. 이 게송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널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월호 스님은 책을 엮는 것에 그치지 않고, 4개월간 무료 강의를 통해 게송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그 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강의는 BBS불교 TV에서 〈월호 스님의 행불 아카데미〉 코너를 통해 지금도 다시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강의 녹취를 풀어 쉽게 다듬고, 각 게송에 얽힌 일화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은 〈쌍윳따 니까야〉 〈디가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그리고 법구경의 빨리어 주석서인 〈담마빠다 아타까타〉와 〈법구경〉 등에서 선별한 아름다운 게송들과 월호 스님이 직접 지은 게송 등 총 176개 게송을 108가지 일화와 함께 소개한다.

이 108 일화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서부터 탄생, 출가, 성도, 전도선언, 초전법륜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자와 재가 신도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들뿐만 아니라 남성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는 등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는 이들과 관련된 일화들도 소개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이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일화나 게송만을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의 게송,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더라도, 나고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 설명한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원인은, 또 그 굴레서 벗어나 생사 해탈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월호 스님은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나고 죽음을 거듭 되풀이하는 근본 원인은 무아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며, 생사서 벗어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네 가지 대면관찰임을 분명히 설한다.

행불선원 선원장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을 상담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전법의 길을 걸어온 행불사문 월호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 해탈의 기쁨을 느끼는 방법을 명쾌히 이 책에서 강설한다.

"라조 하라낭(때를 닦자)!"이라는 단 한 구절의 게송만으로 아라한이 된 쭐라빤타까 스님처럼 우리도 이 책에 있는 게송 단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실천하면 깨달음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월호 스님은 우리에게 잔잔히 들려준다.

책속의 밑줄 긋기

▲무아법에 밝으려면 네 가지로 관찰하세. 그럼 네 가지가 무엇인가?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면해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 하세.

이 게송은 앞의 게송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대면관찰(四念處)의 수행입니다. 이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수행법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지지요. 운전하다가 성질이 나면 '이런, 달마(별명)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달마(達磨)'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말합니다. 달마가 원래 법(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면 '달마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기분이 나빠지면 '달마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사꺄족들은 교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발사 우빨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사꺄족들의 교만이 제거될 것입니다" 〈율장〉「소품」중에서

백팔배나 삼천배 등 절을 통해 하심이 좀 되면 일심(一心), 즉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합니다. 기도가 대표적인 일심 공부입니다. 천수다라니나 〈화엄경 약찬게〉 등을 앉으나 서나 계속 독송합니다. 일심이 되면 무심(無心), 곧 한 마음조차 사라진 상태인 무분별심을 공부합니다. 참선이 대표적인 무심 공부입니다. '아, 이 몸과 마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무심을 맛보고 나서는 발심(發心), 즉 전법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공부는 하심에서 시작해 일심, 무심, 발심으로 이르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인 일심이나 무심 혹은 발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마음공부하려는 분들은 먼저 하심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禪과 茶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차선철학' 안내서



차와 선의 세계

정순일 지음/골든북스 펴냄/2만2천원

"목숨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커피를 마실까" 얼핏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커피 한잔과 같은 무게로 견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유명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베르트 카뮈(1913~1960)가 한 말이다. 삶이란 매순간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라는, 그래서 순간순간이 결단의 연속임을 암시하는 실존주의 거장다운 말이다. 카뮈가 말하는 커피는 삶 전체와 비중이 균등하다. 한 잔의 커피와 인간 생애를 동일시하는 점은 오히려 철학적이기보다 곱씹어 보면 선사다운 사유와 기지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말을 카뮈보다 한시대 앞서 살다간 초의선사(1786~1866)가 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상상하면 '참선을 해야하나, 아니면 차를 마셔야 하나' 이렇게 말했을게 틀림없다"며 "그것은 차의 무게와 선의 중량이 같다는 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이어 저자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붙인다. "차의 성분이란게 별 것이 아니다. 물 99.99%에다가 약간의 색소와 카페인, 그리고 미량의 카테킨과 비타민, 거기에 더 따진다면 몇가지 미네랄 등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한 인간의 삶과 비교될 만큼 엄청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찻잎으로 조합되고, 한 잔의 차로 우리 눈앞에 현전했을 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대자연의 신비이며, 그것을 눈치챈 학자들이 차(茶)에 삶을 견줄만한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불가에서 말하는 '차선일미' '다선일미' '선다일여'의 경지인 것이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차선철학에 대한 친절한 안내이다. 예로부터 차와 관계를 갖는 사람 대부분이 차도의 정신을 논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차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차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존재했다. 그러다보니 차는 사람들에게 마시는 것으로서의 음료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정신을 닮은 동반자로 수용되었다. 특히 불교에서 선의 정신과 결합했는데, 차를 마시는 것과 선 하는 것을 동일 차원서 간주함으로써 마침내 차선일미 사상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차선일미가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상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 책은 차와 선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다양한 접근 한다. 예컨대 조주선사를 비롯한 선사들의 선문답 속에서 차는 어떤 위치를 차지 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차의 정신세계를 밝힌다. 이 책 내용은 원래 강연을 위해 준비됐지만 내용상 균형을 위해 학술 논문도 적절히 편집했다. 그래서 어떤 면은 학술적인 분위기도 다소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선문답을 재미있게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각 강연은 원래 하나의 주제아래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차선철학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차와 선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과히 넘어서는 것은 아니어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저자가 지향하는 '차선철학'의 세계를 일부나마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형식은 하나의 주제를 맥락에 따라 짧게 잘라 편집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글을 무작위로 한 꼭지씩 골라서 읽어도 좋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차와 선을 함께 즐기는 길은 무엇인가? 한편 이 책에서는 차의 정신세계를 육우의 〈차경〉에서부터 찾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후 불교와 도교를 넘나들면서 차의 정신세계와 통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했다.

또한 불교 선(禪)의 발생과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선을 향유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다. 예컨대 조주선사의 '차나 마시게'라는 화두를 다양하게 분석해 선사들의 차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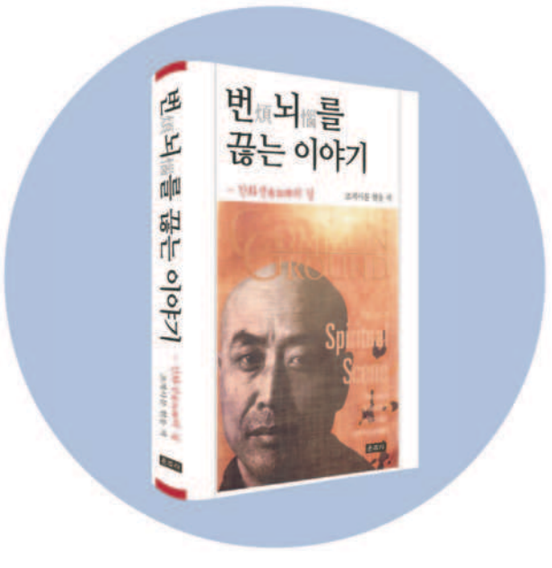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종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선시대 대가람의 뒷간은?

'대가람의 뒷간(厠)' 展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7월 1일까지

2005년 발굴된 회암사지 뒷간
건축물 일부 가상 재현
대가람의 뒷간에 대한 체험
거름지게 · 거름통 등 128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선 시대 사찰 화장실의 모습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7월 1일(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대가람의 뒷간(厠)' 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2005년 발굴된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의 화장실 터를 주제로 실제 구조를 추정해볼 수 있는 건축물 일부를 가상 재현함으로써 대가람의 뒷간에 대한 체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뒷간 이용자 및 백자 등의 식기유물, 전통뒷간문화 관련 거름지게와 거름통 · 오줌장군 · 매우틀과 같은 유물 및 사진, 영상 모형 등 128점이 전시된다. 또한 발굴과정과 분석내용도 소개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는 'K-Museums 지역순회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전시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2016년에 공동으로 기획한 '큰 고을, 양주'에 이은 두 번째 공동 기획전시다.

2005년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는 거대한 석실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석실은 뒷간 터의 지하구조로, 현재까지 국내 사찰 터에서 발굴된 것 중 최대 규모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대가람 회암사의 큰 규모를 다시금 입증해주는 발견이었으며, 당시 사찰의 생활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 · 근심을 내려놓는 곳)'라고 부르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석실구조 위에 자리하던 회암사지 뒷간의 이용자와 사용방법 및 구조를 전시를 통해 당시를 추정해보고, 사찰 뒷간의 간접 경험을 통해 '해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뒷간을 발견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 터의 발굴과정과 기생충 연구, 당시 식생활문화를 소개한다. 2005년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거대한 석실구조의 실제 크기를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생충의 발견으로 드러난 인분의 흔적과 관련 음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회암사에서 사용했던 식기류의 전시를 통해 식생활문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회암사지 화장실 터 지하석실 입구


거름지게-거름이나 분뇨를 실어나른 지게


매우틀-임금의 용변을 담는 틀


장군-물 · 술 · 소변 등을 담는 그릇

2부 '뒷간을 이용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을 이용했을 주요 이용자들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고, 사찰 뒷간이 지니는 전통의 친환경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실록 속에는 출가자를 포함하여 회암사를 다녀간 다양한 외부인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존재는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도자기, 장신구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뒷간과 마찬가지로 사찰 뒷간 역시 거름을 생산하여 농경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암사지 출토 석실구조와 '장군', '동이' 등의 거름 관련 유물 및 농기구 유물들은 왕실로부터 받은 전지를 경작함에 있어 친환경 거름을 사용했다는 주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3부 '뒷간을 상상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의 구조를 추정하여 가상으로 재현을 시도했다. 길이 12.8m의 대규모 석실 위에 자리했던 뒷간은 최대 24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공중화장실이었다. 전시장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유구의 형태와 동시대의 건축양식을 토대로 뒷간의 입구부 일부를 실제 크기에 가깝게 재현하여 관람객이 그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뒷간 연출 구조물 안에서는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대표적인 뒷간의 VR영상을 통해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회암사지 뒷간의 다양한 구조를 3D영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병환 감독의 〈해우소〉(2006)를 통해 사찰 뒷간에서 벌어지는 익살스러운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해우소'라는 명칭으로 유명할 만큼 마음이 편안한 뒷간 공간에서 '쉼' 영상의 감상을 통해 '해우'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

이천 마옥산 용학사 창건 30주년 행사 '풍성'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 4월 28일까지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 포스터

경기도 이천 마옥산에 자리한 용학사(주지 혜봉)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해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를 4월 28일(토) 경내에서 개최한다.

용학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봄내음을 함께 만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본 공연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새로 조성한 삼성각의 낙성식 및 점안식을 진행한다. 지난 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삼성각 불사는 이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동참해 원만히 회향한 불사다. 낙성식 후에는 진도북춤과 용학사 합창단의 공연이 어우러진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공연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무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가수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으로 꾸며진다. 최근 신곡 '잘가라'를 발표하고 각종 매체의 음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뿐이고', '나무꾼' 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 박구윤이 출연한다. 또한 '타요타요'로 유명한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 '사랑해 사랑해', '갑을인생'의 구나운, 국악인 이신예 그리고 분리수거밴드가 함께 무대에 선다. 특별 게스트로 가수 박일남이 출연하며 사회는 전혜원 아나운서가 맡는다. 음악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되며, 음악회 후에는 연등 점등식과 탑돌이를 진행한다.

주지 혜봉 스님은 "예로부터 재해와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 이천에 자리잡은 용학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창건 30주년을 주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별빛과 연등빛 속에서 음악으로 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웃으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공연의 취지와 소회를 밝혔다. 용학사는 이날 음악회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이천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셔틀버스는 송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용학사까지 수시로 운행한다. 오후 5시부터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용학사는 이천의 명산인 마옥산에 자리했던 선덕사라는 이름의 폐사지가 30여 년 전, 지금의 주지 스님인 혜봉 스님의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람으로 문을 열었다. 그 불연에는 이야기가 전한다. 혜봉 스님이 산신각에서 기도 정진 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날개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타나 대웅전의 오른쪽 기둥 쪽으로 스님을 이끌었다. 그 때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하늘로 승천했다. 그 이후로 절은 용학사로 불리었다. 공연문의 / 031-632-4885 박재완 기자

스님 선필과 수녀의 공예 콜라보

스님의 선필이 수녀의 금속 공예를 만나 새로운 회통의 예술로 탄생했다.

국제선도문화연구원은 4월 22일까지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회통'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최마리엘리사벳 수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전, 금속공예 선필 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수처작주', '삼처전심', '처염상정' 등 설정 스님의 선필을 최마리엘리사벳 수녀가 금속공예로 재탄생시킨 작품 18점이 전시됐다.

'회통'이라는 제목과 함께, 스님과 수녀의 작품이 만났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님과 수녀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만나 종교의 이름을 넘어서는 모습이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전시다.

그동안 금속공예를 통해 대중과 함께 하고 싶었던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는 그 인연을 찾던 중 설정 스님의 선필을 만났다. 다른 종교의 이름이지만 마음을 닦아 쓴 글 속에는 종교를 떠나 함께 읽고 함께 할 '배움'이 있었다. 다른 종교에 몸 담고 있지만 수행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수녀는 그 마음을 자신의 금속공예에 담아 회통을 이루고자 했다. 지난 14일 개막식에는 설정 스님과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맹세영 홍성 성당 주임신부 등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 스스로가 겸허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과 함께 공유하고 회통하는 것이 종교인이 가야 할 길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품활동에 도움을 주신 설정 스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박재완 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現 힐링은 진통제 … 관계론적 명상 필요

오용석 교수, 불교학연구 54호 기고 논문서 주장

힐링담론 內 명상, 본말전도 활용
"모든 건 내 탓" 자기계발만 강조
불합리한 사회구조 극복할 수 없어

관계론적 불교명상, 현 시대에 필요
"無我 바탕 명상, 우릴 연대케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사회는 지독한 경쟁사회다. 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현상이 바로 '힐링'이다. 소위 2010년대 초중반을 흔들었던 힐링문화의 최대 수혜자는 불교였다. 스님들의 힐링 서적은 불티나게 팔렸고, 불교의 명상법 등이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명상 붐'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같은 힐링담론은 일종의 진통제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제54호에 기고한 논문 '경쟁 사회에 타나난 힐링 담론 고찰'을 통해 현재의 힐링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오 교수는 한국사회의 힐링담론은 무한경쟁시대에 나타난 부산물임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본질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데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문제를 '나의 탓', '마음의 문제'로 환원시켜 객관적 상황에 눈을 뜨거나 구조적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진통제는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아픔을 눌러 놓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힐링에는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억압이 동반된다"면서 "진정한 힐링담론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 교수는 힐링담론 안에서 소비되는 명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명상의 임상적 효과만을 지나치게 부풀려 장점만을 강조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이해없이 일종의 치료로 활용되는 것은 명상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고 다시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만드는 말초적인 조언에 길들여질수록 우리의 시각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불교의 '관계론적 명상'에서 대안적 힐링담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가 주장하는 '관계론적 명상'은 타인과의 문제와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로 보고, 행동하는 힘을 갖는 명상이다.

특히 오 교수는 '무아(無我)적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상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무아적 통찰에 기반한 명상은 자비로 귀결되며 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회복시킨다"면서 "명상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아를 바탕으로 한 명상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연대하게 한다"면서 "힐링담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유심론적 명상'이 아닌 '관계론적 명상'은 현재 우리 삶과 사회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광연구원·출라롱콘大 교류 협정 체결

4월 17일 체결식… "양국 불교발전 이바지할 연구 추진"

불광연구원과 태국 출라롱콘대 부설 태국학연구소가 상호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4월 17일 조계종 포교원장실에서 수치트라 총스티뜨와따나 태국 출라롱콘대 태국학연구소장을 비롯해 4명의 소속 교수의 예방을 받고 학술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은 지난해 12월 불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제6회 전법학술상에서 태국학연구소 소속 프램 소운사뭇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불광연구원은 "향후 두 기관은 전법학·불교학 등 한국과 태국 양국의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상호 학술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태국학연구소 일행은 잠실 불광사를 참배하고 주지 본공스님과 환담했다. 신성민 기자



불광연구원은 출라롱콘대 태국학연구소와 4월 17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천년고찰 청련사 창건사·성보 연구 가치 높다"

양주 청련사 4월 14일 창건 1191주년 세미나

청련사, 禪宗 사찰로 창건
양주 이전, 천년 이을 불사
불화·불상, 역사적 의미 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이 4월 14일 열린 학술세미나서 총평을 하고 있다.

양주 청련사의 창건 역사와 문화재들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양주 청련사는 4월 14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련사의 창건과 중창 과정부터 불상과 불화 등을 연구한 주제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연구 논문을 통해 청련사 신라창건설과 조선창건설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신라창건설에 창건연대가 흥덕왕 2년인 827년인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선(禪)이 전래된 시기이며, 청련사가 선종 사찰로 창건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하왕십리 종남산에 사찰이 건립된 것은 신라시대 유행했던 보살주처 신앙과 연관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 창건설에 대해서는 무학대사가 한양 지덕을 비보하는 사찰로 청련사를 지정하면서 종남산 서쪽 계곡에 있던 사찰을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까지 7번의 중창이 있었고, 2010년 8번째 중창에서는 사찰을 양주로 이전하는 대작불사가 이뤄졌다. 8번째 중창불사에 대해 이 교수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창이었다"고 평가하며 "청련사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선학들이 피땀으로 이뤄온 전통적 가치관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는 청련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 불교조각들의 양식과 문화재적 가치 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청련사 대웅전의 아미타삼존상(1670년 作)·원통보전의 관음보살상(1651년 作)을 고찰한 유 교수는 "불화 화기 등을 살펴보면 상궁들이 주요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청련사는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청련사의 아미타삼존상과 관음보살상은 17세기 불교조가 연구의 기준작으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는 청련사에 현전하고 있는 13건의 불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폈다. 그는 "청련사 불화는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청련사의 역사를 고증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불화의 도상·양식, 후원자와 화승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는 불화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불교계에 큰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청련사의 전해지는 전통의례문화와 어산 상진 스님의 범음성계보 등을 살핀 논문들도 발표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양주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련사의 불상과 불화들은 우리 청련사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와 불교계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돼 길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용수보살의 '중론' 제대로 배우려면

중관학당, 4기 수강생 모집

용수 스님의 〈중론〉을 배울 수 있는 원전 강좌가 열린다.

(사)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중관학당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4기 중론 강좌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 소재 불교여성개발원 1층 지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의 강사로는 신상환 인도 타고르 대학 前 교수가 참여한다.

제4기 중관학당 강독 강좌는 인도 불교 철학의 특징과 용수의 〈중론〉 11~16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인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한문역의 특징도 같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좌 참가비는 총 5강 12만원이며, 개별 강좌는 3만원. 3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중생 행복' 주제 학술대회 열린다

불교문예硏, 4월 27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7일 오후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에서 '붓다의 행복을 넘어 중생의 행복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생 행복 구현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행복 사회의 가능성과 참여불교의 한계' △민순의 동국대 연구교수의 '자비행에 내포된 행복 메카니즘-공덕과 회향을 중심으로' △김재권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의 기도는 행복을 불러오는가'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강의교수의 '수행자의 깨달음과 범부의 관계'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박재현 동명대 문화학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윤용복 종교사회문화연구소장, 정승안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⑧ 사형수 김무경

분수에 맞지않은 인연이 가족의 비극 초래…

1992년 8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로 기억된다. 당시 내가 주지로 있던 서울 자비사 포교당에 한통의 편지가 날아온다.

"삼중 스님, 이제와서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을 그렇게 죄인으로 만든 것도 다 제가 잘못한 탓이려니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소중히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아이를 자식이면서도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의지하며 2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아이가 잘못된다면 저도 살아갈 희망이 없어집니다. 혀를 깨물고 자진하려 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아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기에 희망을 갖고 사는데, 부디 사형만은 면하게 구명운동이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괴살인을 저질러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23살의 사형수 김무경의 어머니가 보낸 절박한 내용의 서신이었다. 김무경은 4대 독자 외아들이었다. 위 편지에도 소개됐지만, 그의 어머니는 김무경 하나만 보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한 여인을 만나 평범했던 운명이 바뀌었다.

대학생이던 그는 첫 눈에 반한 한 여자를 지독히도 사랑했다. 그녀가 비록 유흥업소에서 일했지만 그에겐 직업과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눈에는 자신의 아들이 감당할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보는 순간 직감했다. 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김무경은 급기야 집을 나가 그녀와 동거에 들어갔다. 그녀가 일하러 간 사이 김무경은 혼자 집에서 보냈다. 무료함을 달래려 집 앞 놀이터에 가끔 나가면서 한 어린애와 유독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애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약수터를 가게 됐는데 난데 없이 따라가겠다고 한 어린아이가 "형 지금 나 유괴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김무경은 배신감에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유괴범 취급을 하자 김무경은 "그래 너 어디한번 진짜 혼나봐라"라고 마음먹고 진짜 유괴를 하게 된다.

이 사건을 접하고 정말 세상의 업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착한 사람이 순간적 악성을 갖고 이성을 잃으면 더욱더 무섭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김무경은 그 아이의 옷차림이 말끔하고 부자집 애같자 욕심이 생겨났다. 그의 애인과 함께 그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유괴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김무경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이미 그 어린아이는 죽은 뒤였다.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울고 소리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유괴는 큰 중죄이므로 당시 사회분위기상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사형을 언도 받는다.



김무경 어머니가 삼중 스님에게 보낸 편지글.

친하게 지낸 이웃집 아이 유괴 살해
순간적으로 이성 잃고 큰 죄업 지어

구명 운동도 소용이 없었다.

김무경이 잡히자 그의 애인이 나를 찾아와 "옥중 결혼을 하면서라도 평생 무경이를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형을 면할길이 없음을 안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 사실을 안 김무경은 감옥서 자해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무경이를 달래고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해 그를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도망간 여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발악을 했다. 그도 책임이 있다며 떠나간 애인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털어놨다. 사실 그를 처음 본 느낌은 교화할 필요가 없는 부처님 같은 불성을 갖고 있는 너무 순진무구하고 천진한 젊은이였다. 거기다가 이후에 그가 보내준 수많은 편지를 보면서 문장력이 뛰어난 친구라는 걸 알았다.

나는 흥분된 그를 진정시키고 설득했다. "어머니 가슴을 저리게 만들면서 까지 목숨걸고 사랑했던 사이인데, 너를 배신했다고 해코지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조용히 참회하고 사나이답게 죄값을 치르고 순응하라"고 다독였다. 그러자 그는 누그러지며 죽는날까지 매일 참회 기도를 했다. 아들의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피해자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더욱더 기구한 사연을 떨어놨다. "60세에 어렵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안아픈 아들"이라며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건물 수위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었다고 한다. 너무도 딱한 사연들이었다.

김무경은 결국 사형이 언도됐다. 하지만 그는 여느 다른 사형수보다 더 안타깝고 슬프게 집행됐다. 보통 당시 사형 집행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거의 집행은 끝난다. 점심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김무경은 점심식사가 방에 들어와 막 한숟갈 입에 넣는데 사형장으로 불려 나간 것이다. 아마도 집행되는 숫자가 많아서 밀려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된다. 입술에 밥을 한술 떠 넣는데 사형장으로 나간 예는 드물다. 참으로 슬프게 간 경우다. 당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기구한 최후를 맞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 아들 대신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고 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렸지만 김무경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나는 그가 떠난 뒤 그가 만일 분수에 맞는 여자를 사랑했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무경은 그동안 어머니 말이라면 한번도 거역하지 않을 정도로 효자였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만나 온 가족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그의 잘못과 업연으로 생긴 일이었지만 말이다. 내가 만난 사형수중에서 그는 가장 심성이 착하고 천진해서 기억이 많이 난다. 당시 또래의 젊은이 같지 않고 정말 끔직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돈을 갖고 오라고 엄마 목을 누르지, 왜 어린애 목을 눌러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만드냐. 그러면 집이라도 팔아서 어미가 네가 돈을 줬을 것 아니냐"라고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순진한 청년의 몸에 맞지 않는 어긋난 사랑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정리=김주일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⑧ 도견스님 · 요양병원에서

일주문을 바라보고 예를 갖추니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계단을 한발 한발 옮겨 가까이 가니 스님은 냉큼 손을 잡고 굽은 등으로 걷기 시작하셨다. 스님 방에 도착한 순간, 첫 말씀. "나랑 공부합시다."

그렇게 기연(奇緣)이 되어 스님께서 남기신 밥도 먹어 보았고 입으셨던 옷도 걸쳐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평상에 놓고 간 주장자도 건네받았다. 스님이 열반하신 후 다비식에서 습골의식에도 여러 스님들의 배려로 동참했다. 스님께서는 담박함을 즐기셨으며 나옹선사의 게송을 자주 말씀하셨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탐욕도 벗어 놓고 /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부처님께서는 「보왕삼매론」에서 말씀하시었다.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나도 한때 비(病苦)를 맞으며 빗속을 헤매일 때가 있었기에 가끔 봉사활동을 하며 지낼 때의 일이다. 한 방에 6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흠뻑 비에 젖어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부처님 우산을 빌리자고 하여 내주었다. 내가 그에게 〈반야심경〉을 노래하니 그는 길고 명징(明澄)스럽다고 답하였다. 누군가도 어느 때는 병도 친구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도 비를 맞을 때 때맞추어 내리는 비라고 묵묵히 맞았고 때맞추어 찾아온 친구라고 안아 주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비는 나를 키워 접시 위에 나를 세운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세계최초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
55부작 드라마 붓다
Drama Buddha
방송 시간 월·화 13:30 수·목 01:00 / 토·일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서울 제2총무원 개설 예정입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오시는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NEPAL
인도 네팔 8대 성지 순례 11일
쉬라바스티 룸비니 상카시아 쿠시나가르 바이샬리 차르타트 라지기르 부다가야
밍글라바 인연이 닿아야 갈수 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 나라 미얀마 에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코스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코스
3대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코스
양곤-바간-헤호 3박5일
히말라야 고요한 왕국 부탄 성지순례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성지순례 4박6일
파로-팀푸-푸나카-파로
출발일 6월17일/22일/27일 7월2일/7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하늘과 맞닿은 성지 티베트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칭짱열차"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쵸-장체-시가체
라싸-칭짱열차-서안-인 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
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